terra viva manifesto

우리의 흙, 우리의 공유지, 우리의 미래
지구별 공민권의 새로운 시야

이 한 줌의 흙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
이를 보살피라, 그러면 흙은 우리의 음식, 땔감, 우리의 쉴곳을 키워줄 것이며, 우리를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쌀 것이다.
이를 남용해 보라, 그러면 흙은 붕괴하고 죽으면서 인류를 함께 데려갈 것이다.
기원전 1500년 베다 범어 경전에서

이 문서는 2015년 1월 피렌체에서 모인 여러 학문들과 나라들에서 온 지도적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선언문 초안 그룹의 토론과 기고에 기초를 둔다. 이는 기고문들과 이어지는 투입내용 그리고 작성내용들을 포함하며 이는 나브다니야 편집팀인 반다나 시바, 캐롤린 로커트, 그리고 루치 쉬로프에 의해 지금의 문서로 합쳐졌다.

Working Group Participants:
Vandana Shiva, Founder and President Navdanya International and
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Ecology;
Ilaria Agostini, Urban Planner Dep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Bologna;
Nnimmo Bassey, Health of Mother Earth Foundation Nigeria;
Marcello Buiatti, Geneticist University of Florence;
Andrea Baranes, Economist Ethical Bank Foundation;
Gianluca Brunori, Agrarian and agro-food economist University of Pisa;
Piero Bevilacqua, Agrarian and Social historian University "La Sapienza";
Jill Carr-Harris, Ekta Parishad Forest and Land rights movement;
Luc Gnacadja,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 Convention on Desertification;
Maria Grazia Mammuccini, VP Navdanya International - former Director of the Regional Agency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farming and forestry;
Richard Ingersoll, Architectural and Urban History Syracuse University;
Giannozzo Pucci, Editor of the Ecologist Italy, VP Navdanya International;
Sabina Siniscalchi, Ethical Bank Foundation and VP of Cascina Triulza
Assoc. Civil Society Pavilion, Expo 2015;
Jan Douwe Van Der Ploeg, Rural Sociology, University of Wageningen The Netherlands.
With contributions of:
Roberto Budini Gattai, University of Florence, Severine von Teschner Fleming Greenhorns and Veronique
Rioufol, Project Coordinator Access to Land for Community Connected Farming in Europe.
Research Assistant to the Editorial team: *Berenice Galli*.
Sincere thanks to all those who helped in the realization of this report, especially *Filippo Cimo* and *Consuelo Tesei*.
Design and layout: *Giancarlo Cammerini*.
Special thanks to Banca Etica and Cascina Triulza for their support.

Navdanya international www.navdanyainternational.it

BancaEtica www.bancaetica.it

Fondazione Triulza www.fondazionetriulza.org

우리는 이 terra viva 선언을 이 인류 역사에서의 취약하고 사활이 걸린 시점에 희망, 인간의 창조성, 연결행위들을 보고 행할 우리의 역량에 기초를 둔 이행(移行)의 윤곽을 보기 위해 제안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기초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짓된 가정(假定)들을 식별하고 살아 있는 흙, 살아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살아 있는 경제들에 기초를 둔 지구 민주주의를 창조하기 위해서다.

유엔이 정한 흙의 해에 이 선언문은 흙,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들을 기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흙이며, 진흙이 인류를 빚어낸다는 것, 그리고 삶아 있는 흙의 파괴는 우리의 미래를 종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이 선언문은 결정적인 쟁점들과 위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일로(silo)들에서는 대처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흙, 토지와 토지 장악(land grab), 영농, 기후변화, 실업, 커가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커가는 폭력과 전쟁들이 그렇다. 현재의 단선적, 채취적 사고방식에서 호혜적 주고받음에 기초를 두는 순환적 접근방식으로의 이행에 기초를 두면서 이 선언문은 정의, 존엄성, 지속가능성, 평화 그리고 참된 새로운 민주주의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새로운 순환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1부

해야 할 선택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종으로서의 우리의 공통의 미래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

생태적,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들의 계속되는 순환주기들은 인류를 적색경보 상태에 처하게 했다. 기후 파국들, 기아, 빈곤, 실업, 범죄, 분쟁들과 전쟁들은 우리를 사회적 붕괴를 향해 치닫게 한다. 지구 위에서 우리 생명, 그리고 우리 인류의 기초 그 자체인 흙이 위협받고 있다. 흙에 대한 이 위협은 우리가 직면하는 다중(多重)의 위기들과 연결된다.

우리의 공동의 생존이 요하는 바는 우리가 폭력의 악순환들로부터 비폭력의 선순환들로, 죽음과 파괴의 부정적 경제들로부터 땅위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살아 있는 경제들로, 상호 멸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부정적인 정치와 문화들로부터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과 이 모든 생명의 참여를 포함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지구별의 공민권, 호혜, 돌봄과 존중, 취함과 돌려줌, 세계의 자원들을 모든 생물 종들 간에 나눔에 기초를 두는 지구와의 새로운 계약의 새로운 시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는 우리가 흙을 다루는 방법에 관하여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 흙을 고갈되기까지 이용될 무기질 광물로 바라보기보다 그 생존이 우리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살아 있는 존재, 살아 있는 땅(Terra viva)으로서 보살펴져야 한다. 흙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

분리와 파편화의 패러다임

이 파괴성을 재촉하고, 우리가 그것을 저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된 이유는 제시된 해결책들이 문제를 야기한 패러다임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일으키던 때 썼던 같은 사고(思考)를 가지고서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없다.”

바라보고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분리의 우세함, 사물들이 고립되고 별개라는 믿음은 이 지배적 패러다임의 특징이다. 세 가지 분리의 착각이 우리가 흙과 토지, 음식과 일, 경제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방식의 교정(矯正)과 변형을 방해한다.

- 인간들은 지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 시장에서의 부(富)의 창출은 다른 것들: 자연, 일꾼들, 여성, 조상들의 기여와 분리되어 있다.
- 행동들은 결과들과 분리되며 권리들은 책임들과 분리된다.

이런 틀린 생각들이 인간들을 자연에서, 흙을 사회에서, 생태학을 경제에서 분리시킨다. 분리와 파편화의 패러다임은 자연과 사회로부터의 일방적 채취, 내어줌 없는 취함의 법칙으로 인도한다. 그것의 실행자들은 자연과 사회로 되돌려 줌의 책임을 모르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생태적 위기들을 조장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의를 지속케 한다.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붕괴의 명백함이 상식이 되었어도 이런 착취적 논리의 결과들은 일상에서 무시되고 외부화되고 행동으로부터 분리된다.
지속불가능 농업이 흙, 종다양성, 물, 생계활동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들처럼 기후변화는 부정된다. 지속불가능하고 불의한 자원 사용에서 생겨나는 분쟁들은 그 생태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지지 않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분쟁들로 치부된다. 일으켜진 모든 문제와 위기에 대하여 채취적, 단선적 그리고 맹목적 논리의 점점 더 큰 응용행위들이 가해진다.
이 단선적 정신구조는 강자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지는 정복을 향해 맹목적으로 그리고 오만하게 밀고 나가도록 재촉한다.

단선적 접근방식으로부터 순환적 접근방식으로

자연과 사회에서 생명과 생명의 활력은 상호성, 존중과 인간적 연대의 갱신과 재생의 순환주기들에 기초를 둔다. 흙과 사회 사이의 관계는 호혜성, 수확, 되돌려 줌의 법칙 위에 기초를 둔다.
생태적 반환의 법칙은 영양소와 물의 순환주기들, 그래서 지속가능성의 기초를 유지한다. 사회에 대해 반환의 법칙은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장하는 기초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로부터 자원과 부의 단선적 일방적 채취에 기초를 둔 경제 패러다임은 자연계와 사회적 세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면서 이 순환주기들을 단절시키고 찢어발긴 생산과 소비의 체계들을 촉진해 왔다.

지배적 경제 모형은 더 이상 그 뿌리를 생태학에 두지 않으며, 생명을 지탱

하는 생태계와 과정들을 교란하면서 생태학 바깥에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한다. 통제받지 않는 자원의 정복은 생물종들을 멸종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불가역적 기후 재앙을 유발하는 가운데 생태계들을 붕괴로 이끌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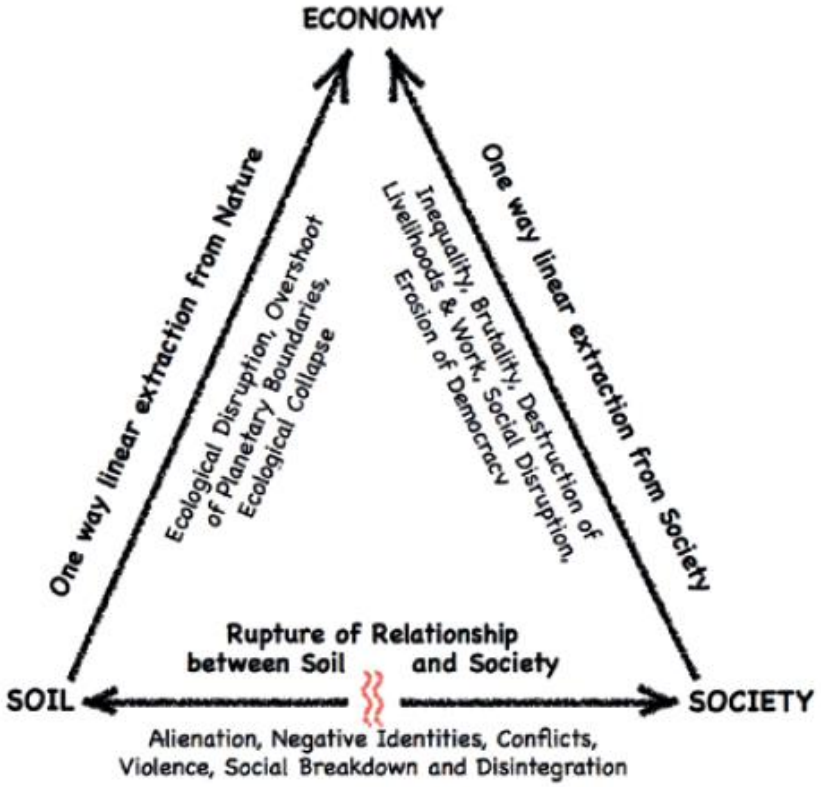


그림 2 흙, 사회, 경제: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붕괴의 위협을 가하는 단선적, 채취적인 착취의 논리

유사하게, 경제는 사회의 부분이면서 사회 바깥에 그리고 사회 위에 민주적 통제 너머에 위치해 왔다. 윤리적 가치들, 문화적 가치들, 영적 가치들, 돌봄과 협동의 가치들 모두 이윤만 추구하는 지구 전체 시장의 채취적 논리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다. 경쟁은 협동에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다. 우리의 상호의존적인,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현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가치들이 밀려나거나 파괴되어 왔다, 현실이 사회 내의 지배적 권력들에 의해 창조된 추상적 구조물들에 의해 대체될 때, 이윤과 권력을 위한 자연과 사회의 조정은 더 쉬워진다. 실재의 사람들과 실재의 사회들은 기업들의 복지로 대체된다. 자연과 사회의 경제들의 실재적 생산이 자본의 추상적 구조에 의해 대체된다. 실재적인 것, 구체적인 것, 생명 부여(life-giving)적인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통화(通貨)들에 항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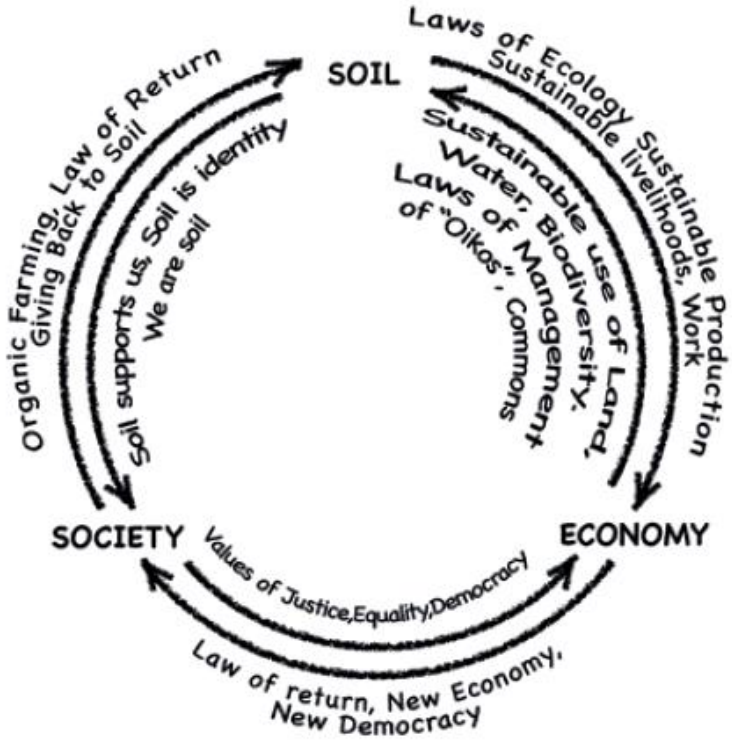


그림 3 흙, 사회, 경제: 반환의 법칙, 상호성, 호혜성 및 재생의 순환논리

자연계의 교란: 걷잡을 수 없는 생태 발자국을 통한 지구별의 경계선들의 침범

지배적 경제 모형은 생태적 반환의 법칙들로부터 그리고 지구의 재생 순환 주기들로부터 분리되어 온 것으로서 지구별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세기에 토지 이용의 극적인 변화는 생태계를 변형시켜서 70%의 초지, 50%의 사바나, 45%의 온대 낙엽수림, 27%의 열대 숲 생물군계를 농업을 위해 청산하거나 전환시켰다.[1)]

한 세기가 안 되는 기간에 우리의 지속 불가능한 영농 체계들의 유산은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면적에 상당하는 양의 버려진 토지를 만들어냈다.(약 20억 헥타르)[2)] 오늘날 전세계의 농경지가 차지한 전체 면적보다 크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실하게 관리된 목초지와 방목지는 80%를 심각하게 침식되고 열화된 채로 방치해 왔다.[3)]

1) FAO, The State of the World's Land and Water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SOLAW), 2011
2) Pimentel D. & Burgess M., Soil Erosion Threatens Food Production, Agriculture 2013 3, 443-463.

지배적 경제 체계는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 과정들에 대한 단선적 시야에 기초를 두며 거기서 자원들은 투입물이고 재화는 변형 과정의 산출물이 된다. 소비되지 않는 것, 이 경우에는 토지인데 이것의 운명은 경제적 거래 외부에 남게 되며 그래서 유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지구 별의 모든 부분에서 흙, 물, 토지는 발전이란 이름으로 순수한 이윤을 위해 상품화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걸친 투자자들은 여러 공동체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비옥한 토지 수백만 에이커를 장악하고 있다. 공유지들은 시장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납치되고 있다. 토지 장악과 이어지는 산업화된 농업 관행은 기후변화에 직접 관련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2000년도 이래 세계는 약 1천억 톤의 탄소를 대기중으로 뿜어올렸다.[4] 지금의 속도로 이산화탄소 수준은 세기 중엽이면 두 배로 늘어서 지구 기온을 2-4도 상승시킬 것이다. 제임스 핸슨 같은 존경받는 기후학자들은 현재의 지구온난화 속도는 대량의 사막화, 흉작, 연안 도시들의 범람, 빙하와 극지 만년설의 해빙, 대량 이주, 동식물군의 광범위한 멸종을 대규모로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홍수, 폭풍해일, 가뭄과 열파(熱波)의 증가가 이미 관찰될 수 있다. 식량 부족과 관련된 맹렬한 분쟁이 예측 가능한 결과다.

2025년까지 18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 물 부족 국가나 지역에 거주할 것인가 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물 스트레스 환경과 싸우게 될 것이다.[5] 적어도 세계 토지면적의 25%는 고도로 열화되거나 급속한 열화[6]를 겪는 중이며, 이는 지구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의 20%에 연결된다.[7]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의 연구자들은 넘어서게 되면 인류에게 수용 불가능한 환경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아홉 개의 잠재적 생물 물리적 문턱들을 식별했다. 그것들은 기후변화, 성층권 오존, 토지이용 변화, 담수사용, 생물 다양성, 해양 산성화, 생태계와 해양으로의 질소 및 인 유입, 에어로졸 부하 및 화학적 오염이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 경계(境界)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다른 경계들의 안전 수준 내에 머물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8]

---

3) FAO, Land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desertification in Africa, 1995.
4) IPCC,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2014.
5) UNESCO, UN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Paris, 2009.
6) FAO, Land degradation in SOLAW Background Thematic Report 3, 2011.
7) UNEP-WCMC, Carbon in Drylands: Desertification, Climate Change and Carbon Finance, 2008.

사회적 세계의 교란

사라져가는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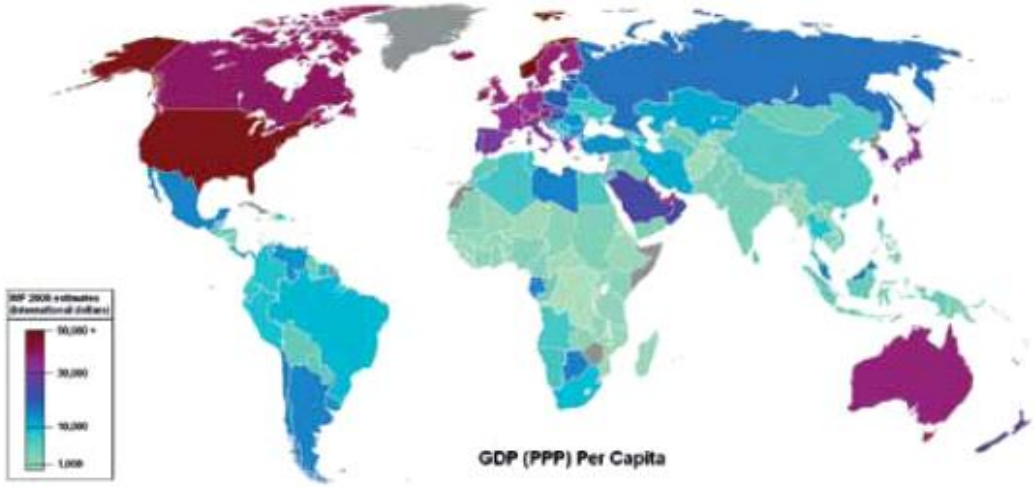
인류를 직면한 주요 도전들 중 하나는 지배적 정치 체제를 어떻게 그 착취적 경제 모형으로부터 옮기느냐 하는 것이다.
민영화, 성장 자유무역의 신자유주의적 목표들은 복지국가를, 그리고 그것과 함께 건강, 교육, 일과 안전 등 지난 세계의 민주 운동들이 제도화한 것들을 벗겨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국가는 기업체로 돌변하고 있다.
글로벌화 그리고 진행중인 금융위기들로 긴축조치가 여러 사회들에 과해지고 근본적인 인권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남반부 나라들에서 그것은 "구조조정"과 "무역 자유화"의 호위 아래 일어났고, 유럽에서는 "긴축"이란 이름에 의해 진행된다. 복지국가로부터 기업국가로의 전환의 지속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꺼뜨리고 있다. 기업의 영향 아래서 여러 정부들은 점점 더 기업들을 대표하여 움직인다. 정치권력은 경제 피라밋의 상위 1%를 반영하고 있어 99%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구와 지구상의 생물종들을 깔아뭉개고 있다.
글로벌화된 기업 경제에 착근된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시민들을 정기적 선거의 피동적 실행에 참여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인민으로부터 권력의 일방적, 단선적 추출을 일으키고, 인민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토지, 생명, 생계를 지키는 데 무력해지게 방치한다. 체제는 인민이 토지 장악, 일의 파괴, 생명부양체계들의 파괴를 막아낼 능력을 억누른다.

커지는 불평등

광범위한 항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적 경제 불평등이 계속 증가해 왔다. 가장 부유한 1%에 의해 소유되는 세계의 부(富)의 몫은 2009년 44%에서 2014년 48%가 되었다.[9]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장 부유한 1%는 나머지 세계 인구가 가지는 것보다 곧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300명의 가장 부유한 개인들은 지난해에 자신들의 부를 5240억 달러 증대시켰는데, 이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29개국의 소득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10]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타인들과 관계하는 방

8) Stockholm Resilience Centre, Planetary boundaries research, 2009.
9) OXFAM, Wealth: having it all and wanting more, 2015.
10) Savio R., Inequality and Democracy, IPS, 2011.

식을 강조함으로써 폭력성을 띤다. 사회가 더 불평등할수록 폭력 발생율은 더 높다.[11]



일어나는 분쟁들과 폭력

전세계에 걸쳐 우리는 새로운 폭력적 분쟁들이 약탈적 경제 모형의 생태적 결과들로서 생겨나는 것을 목격한다.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따르면, 60년의 기간에 걸친 국가 내 분쟁들의 40%는 토지 및 천연자원과 연관된다. 더욱이 2007년에 주요 무력 분쟁의 80%는 취약한 건조 생태계들에서 일어났다.[12]

1984년 편잡에서의 폭동의 발생이든, 오늘날의 시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는 폭동이든 분쟁들은 흙과 물의 파괴, 토지가 생계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에 기원을 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분쟁들은 그 생태적 맥락에서 살펴지지 않고 종교적 동기들로 치부되어 폭력과 군사화가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공격적인 경제들 그리고 반민주적 정치가 취약한 문화들과 정체성들을 먹여 살리고 연료를 공급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들은 토지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문화적 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함께 공진화해 왔다. 토지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감각을 제공해 준다.

사람들이 쫓겨나고 불안정이 커지면서 정체성은 변형되고 파괴된다. 이런 취약한 문화들과 정체성들 가운데, 테러,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가 극성을 부린다. -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 폭력과 배제의 악순환들이 기승을 부린다.

---

11) Wilkinson R. & Pickett K., The Spirit Level, The Equality Trust, 2015.
12) UNCCD, Desertification. The Invisible Frontline, 2014.

경제 활동들에 대한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규제의 결여는 최악의 탐욕, 무책임성 그리고 폭력을 부른다. 자유 무역에 기초를 두는 경제는 점점 더 전쟁 같아지고 모두의 안녕으로의 길과는 점점 덜 비슷해진다.

지구별 공민권의 새로운 시야를 향하여

지구별 공민권의 새로운 시야는 인류를 위한 살만한 미래의 가능성을 위한 절대명령이 되었다. 그러한 미래는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과 연민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야는 인민에게 힘을 주고 무책임한 행동과 불법적 권력을 제한할 것이다. 미래는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들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올 것이다. 그것은 단선성과 추출로부터 순환성, 협동과 나눔으로의 이동에서 커갈 것이다. 그것은 모든 수준에서의 다양성에서 커갈 것이며, 정신의 일률성과 단일 문화들(mono-cultures)로부터 커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는 생명 - 흙, 음식 그리고 토지 -이 쓰레기와 불활성 물질로 변형되는 것 그리고 인민을 지출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막아주는 새로운 시야에서 생겨날 것이다. 자원과 사람들을 낭비하는 것은 자연에

ejolt Source EJOLT Global Atlas mapping environmental conflicts throughout the world.

그림 5 전세계 환경분쟁지도

서 그리고 올바른 사회들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다. 지방 민주주의는 참된 지

구 전체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지구 전체적 공민권은 지방에 - 흙에, 토지에 뿌리를 둠에서 나온다. 미래는 흙에서 경작되고 토지에서 커나갈 것이며, 지구 전체적인 허구적 금융시장, 기업 법인과 소비주의에서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흙의 일부로 보는 것을 중단해 왔다. -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에 자리를 내 주었고, 이는 지금 기업 중심주의에 자리를 내 주고 있다. 우리는 기업 중심 세계관으로부터 지구 가족에 중심을 둔 세계관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미래는 살아 있는 흙에서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흙이다. 흙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 형성의 핵심에 있어야 하고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새로운 순환경제와 새로운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땅이다.

국제연합은 2015년을 "사람들이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필수적 생태계 서비스들,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흙이 하는 결정적 역할을 의식하도록" 국제 흙의 해로 정했다.[13)]

산업 문명은 우리가 더 많이 정복하고 자연을 파괴할수록 우리가 더 '발전'된다는 오만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흙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다. 이는 우리와 땅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이끌어 왔다.

우리는 땅과 흙과의 새로운 계약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흙이며, 우리는 흙에서 자라나며 흙에 의해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약인 것이다. 이는 새로운 르네상스이며, 흙은 살아 있고, 흙을 돌보는 것이 지구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일이고 인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임의 새로운 깨달음인 것이다.

좋은, 영양가 높은 그리고 건강한 음식은 건강하고 활기찬 흙의 부산물로 나온다. 농부들의 건강 제공자요 흙의 형성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될 때 전통 농업은 더 이상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고 마땅히 받을 만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도시와 산천 간의 새로운 균형이 흙과의 새로운 계약에서 자라날 것이다.

---

13) FAO, 2015 International Year of Soil (www.fao.org/soils-2015).

새로운 농업을 향하여

새로운 농업은 새로운 경제들과 새로운 민주주의들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장이다. 지난 세기는 전쟁 산업에서 생겨났고 화학물질과 화석연료에 초점이 두어진 산업적 농업 모형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 왔다.
그것은 흙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뿌리 뽑고, 불건강을 유발하고, 30%의 음식 물쓰레기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낭비를 일으켜 왔다.[14] 그것은 수체의 파괴와 토지의 침식, 생물 종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온실가스와 대량 실업의 주범이다. 그것은 토지의 비옥성 그리고 농부들에 의해 창조된 가치를 추출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농부들은 그들이 음식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열 배를 사용하여 그들이 벌 수 있는 것의 열 배를 써 없애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는 가족농과 소농이 직면하는 위기, 채무와 자살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산업화된 농업은 더 이상 식량 체제가 아니라 상품 생산 체계로서 곡물 생산은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연료와 동물사료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들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사람들, 토지, 음식 그리고 건강의 열악화를 초래한다. 이 열악화의 비용은 표로 작성되지 않으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외부효과들로 남겨진다.
새로운 농업은 유기적 방법들을 통해 비옥성을 흙으로 돌려 줌 그리고 농부들이 땅 위에 머물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과 공동체들에 풍성하고 영양 높은 음식을 공급하는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줄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출발한다.
새로운 농업은 흙과 자원에 대한 선형의 추출과 착취의 법칙을 회복력과 영속성, 지속가능성, 정의와 평화를 보장해 주는 순환적 반환의 법칙으로 대체한다. 그것은 음식과 토지를 탈상품화하고 음식의 생산에 응당의 존엄성을 가져다준다.

새로운 순환경제

생태학과 경제학은 가정, 지구 그리고 우리가 터전으로 삼은 특정 장소들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

14) FAO,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2011.

별 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완성을 이룰 “오이코노미아”라고 불렀다.

“크레마티스틱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돈 버는 기술에 대해 사용한 낱말이다. 오늘날 경제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상 크레마티스틱스 또는 돈 벌기에 국한된다. 이는 자연과 사회로부터 부를 단선적으로 추출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오큐파이 운동이 “1% 대 99% 경제”라고 묘사한 것을 초래하는 몇몇 기업들의 손아귀에 집중된 가정들, 모형들, 법칙들, 정책들을 초래한다.

돈 버는 기술은 자연과 대다수의 사람들을 헐벗고 배제된 채로 방치한다. 오늘날 세계에서의 만연한 빈곤은 추출적 경제 모형에 의해 창출된 인위적 희소성의 결과다. 간디가 말했듯이 “지구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을 제공하지만 몇 사람의 탐욕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선적 추출적 체계는 희소성의 가정과 창출에 기초를 둔다. 희소성의 가정은 흙, 지구,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함에 기초를 둔다. 그들은 불활성이고, 피동적이고 단지 “상품들”일 뿐이며,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생산하는 자본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다.

희소성은 - 생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착취, 추출, 오염 그리고 낭비에 의해 창출된다. 그것은 또한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고 공유물인 것이 사유화되고 전유되어 대부분의 서민이 공유물에서 혜택을 보는 것에서 배제되게 할 때도 창출된다. 흙과 토지의 중독과 포장도 희소성을 창출하여 그것들이 생명을 부양하지 못하게 막는다.

새로운 경제는 경제를 오이코스에 다시 착근케 한다. 새로운 경제는 순환경제다. 그것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가정인 지구별, 흙, 생물종 다양성, 수체, 강들, 해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의 두 번째 목표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 생산자 그리고 수혜자로서 살아 있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구별을 공유함은 그 흙과 땅의 돌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공유함을 내포

한다. 공동의 책임은 “공유물”을 이루며, 이로부터 공동의 권리들과 공동의 번영이 흘러나온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흙에 뿌리를 내린 사회에 뿌리를 둔다.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우리의 경제들을 이룰 때 - 우리가 우리의 식량, 우리의 물, 우리의 종 다양성 그리고 우리의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관심거리들을 고려한다.
모든 생명의 민주주의는 활기 차고 풍성한 지구 - 테라 비바-에서의 참여적이고 살아 있는 민주주의다. 이는 모든 종들과 모든 종들이 바로 그들의 본성상 다양하기 때문에 이는 다양성을 허용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기려져야 할 그 무엇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은 생존을 보장해 줄 자연의 부: 흙, 식량, 물, 생태적 공간과 진화적 자유를 공유할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

“자유”는 인민의 자유와 지구별의 생명 그리고 그곳의 다양한 종들의 자유를 기업들의 자유로 대체하여 지구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부양하는 살아있는 경제들을 파괴하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납치되어 왔다. 이는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빼돌려서 기업들의 손아귀에 넣어 줌으로써 자유를 “반(反)자유”로 전환해 왔다. 이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책임이 없는 단선적 추출적인 상향의 권력 흐름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들에서는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TTIP)과 환태평양 파트너쉽(TPP) 같은 비밀리에 협상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 조약들이 기업들이 자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부들을 제소할 수 있게 해 준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권력과 의사결정의 순환을 시종 가능하게 해 주면서 사람들 간에 공동체를 창조할 연대의 순환들을 창출함을 가능케 하므로 순환적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단선적 역사관을 순환적 역사관으로 대체하는 것과 손을 잡고 나가며, 흔히 듣게 되는 TINA (대안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신드롬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지식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IPRs) 그리고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를 통한 기업의 지식 통제는 민주주의,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자유의 계발(啓發)은 양식을 갖춘, 깨어 있는, 능동적인, 참여하는, 창조적인, 돌보는 시민 정신의 계발이다. 자유의 계발은 땅의 공동체와 지방 자치단체들을 그 모든 다양성과 다원성에서 계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지구 민주주의다.

흙은 생명이고 생명의 기초다. 그래서 흙은 새로운 농업, 새로운 순환경제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출현하는 새로운 시야의 기초일 수밖에 없다.

제2부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땅이다.

“모든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이 자기의 흙을 돌보는 방식에 결국 쓰여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땅은 인민의 정체성이다. 그것은 문화와 경제의 바탕이다. 땅과의 결속은 지구와의 결속이다.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세계의 모든 문화들이 공유하는 결속인 것이다. 땅, 흙 그리고 음식은 풀 수 없게 한데 묶여 있다.

토지를 흙으로부터 떼어내고, 흙을 음식으로부터 떼어내어 그것들을 별개의 존재들로 만드는 것은 단선형 경제들과 농업의 산업화를 초래한 식민적 관념의 효과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토착 문화들은 토지를 땅과 흙 - 파차마마 또는 “어머니 땅”으로 언급했다. 남인도의 달릿 공동체들 중에서 토착문화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마타 다르티(어머니 흙)에서 찾는다. 전세계의 땅의 수호자들은 토지가 인간과 동물의 생명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살아 있는 체계이므로 신성하다고 본다. 토지는 어머니의 젖이 그 자녀들에게 생명인 것만큼 생명인 것이다.
토지를 생명으로 봄으로써만 우리는 토지를 사유 재산으로 상품화하는 편협한 단선성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을 혁명화하여 이 선언문에 펼쳐져 있는 전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소가족농은 오늘날 세계에서 식량 생산의 주축이다. 토지는 흔히 전세계 농촌 공동체들과 가족농들의 유일한 자산이며, 토지의 건강에 그들의 생계와 안녕이 달려 있다. 토지는 생명, 양분공급 그리고 배움의 원천이가. 우리에게 음식, 섬유, 원료와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이런 재화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역량은 살아 있는 유기체들, 물, 공기, 광물질 그리고 태양에너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건강한 토지는 자연적 순환주기들에 기초를 두고 재화의 규칙적 흐름을 제공해 준다.
농업적, 수경(水耕) 및 삼림 체계들은 자연적 순환주기들과 인간적 순환주기들 간의 장기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인간 공동체들은 자연적 순환주기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적합화한다. 이런 이유로 토지 ‘청지기직’ , 토지의 돌봄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들을 넘어서 간다. 좋은 토지 관리는 토지를 세대에서 세대로 사회적 관습을 통해 지켜간다. 토

지에 대한 관계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영성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토지가 공유물에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사회들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교란해 온 것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의 원천의 박탈을 허용해 온 것이다.
게다가 현행 토지 이용 관행은 삼림제거, 과잉방목 그리고 흙과 수자원의 과잉 착취를 유발하여 토지 열화, 흙의 비옥성 상실, 종다양성의 상실, 농생태계 기능들의 고장, 수확량 감소, 기근과 영양부족 그리고 생계의 쇠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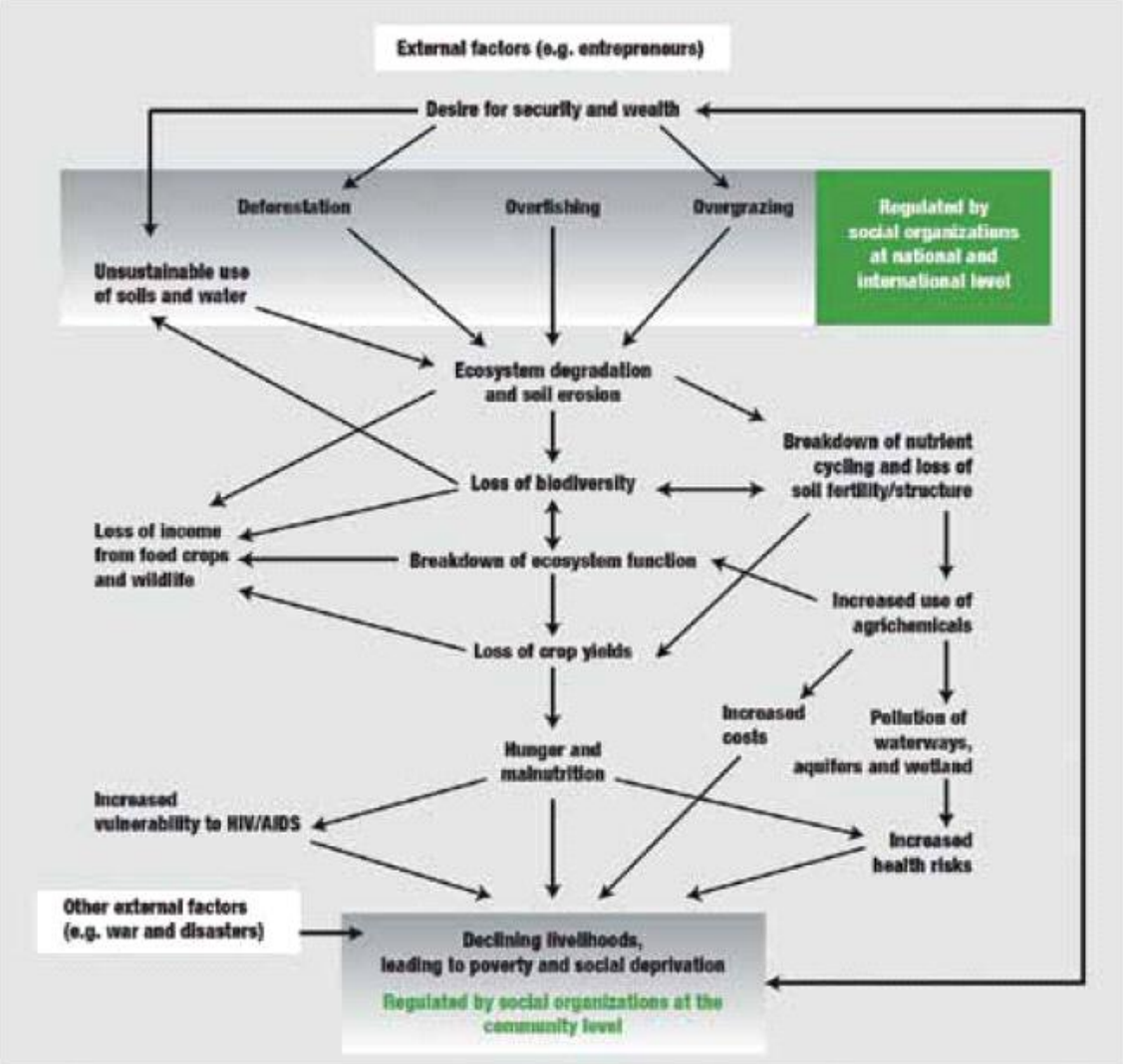


그림 6 토지 열화와 사회적 타락의 순환 (출처: UNCTAD 2013)
출처: Leaker et al., 2005에서 각색.

부정적 영향들의 폭포를 유발해 왔다.[15)]

15) UNCTAD, Trade and Environmental Review - Wake up before its too late, 2013

공유지의 울타리 두르기와 토지의 상품화

-지적, 물질적, 생태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 우리 시대의 주요한 쟁투 사항들은 공유된 자원의 상품화와 사유화, 공유지의 울타리 두르기다.
자원은 사회 체계들이 그것을 정의와 지속가능성의 원칙대로 사용하도록 존재할 때에는 공유물이다. 이는 사용자들 중에서의 권리들와 책임들의 조합, 활용과 보전의 조합, 자연과의 공동생산의 감각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한 공동체들의 구성원들 중에서 공유함을 내포한다. 토착민들에게는 세습재산이 경제적 권리들의 묶음이라기보다 관계들의 묶음이다. 1770년부터 1830년 사이에 3280개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공유지의 울타리 두르기를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기 위해 통과되었다. 이 결과로 6백만 에이커의 공동 소유지, 장원(莊園) 경지(open field), 목초지, 습지, 숲 그리고 점유되지 않은 "황무지"들이 사유로 넘어갔고 이어서 산울타리, 목책으로 울타리가 쳐지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경작이 되고, 방목이 되고 수렵이 행해졌다.[16)]

그러나 울타리 두르기는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역사적 에피소드만이 아니다. 울타리 두르기는 식민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중심을 이루어 왔다. 식민지 지배는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남북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래의 민족들을 내쫓고 뿌리뽑음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창출했다.

신성한 토지와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토지는 토착민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근본이다. 토착민 토지 관념은 유럽의 법령 체계들과 달랐고 지금도 다르다.

각 사람의 개인은 가족 집단 내에서 일정 영역들에 속했고 특정한 나라에 영적인 연결과 의무들을 가졌다. 그래서 토지는 소유되지 않았다. - 사람이 토지에 속했다. 원주민(aboriginal people)은 토지를 단지 물리적인 환경이라기보다 풍부하게 상징적인 그리고 영적인 풍경으로서 경험한다. 종교는 자연환경과의 일체성 철학에 기초를 두었다.

토지에 대한 영적 관계성은 토지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빈 땅(Terra

16) Shiva V., Earth Democracy - Living Economies, 2005.

Nullius)이며, 유럽 문화는 토착 문화들보다 우월하다는 전제 위에서 일방적인 점유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 전체를 차지하기 위하여 제임스 쿡과 아서 필립 같은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땅의 피동성이라는 식민적 구성개념과 이어지는 빈땅(terra nullius)이라는 식민적 범주의 창출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원주민들의 존재와 우선적 권리들을 부정했다. 그리고 땅이 가지는 재생 역량을 뭉개어뜨렸다. 그러므로 그것은 울타리 치기로부터 사유재산권의 발생을 허용했고 "발전"과 "진보"라고 여겨질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이용을 허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민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체를 빈땅(Terra Nullius)으로 선언함으로써 토지와 그 천연자원의 완전한 전유(專有)를 정당화했다. 이 선언은 식민자들이 관련되는 한, 공유지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간단한 길을 연 것이다.

지구 남반구와 지구 북반구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대규모 토지 장악(land grabbing)의 긴 역사를 가진다.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영국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는 토지 장악과 사유 재산권 창출을 통한 토지 통제,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걸친 "황무지" 관념의 창출의 역사로 볼 수 있다.[17][18]

산업화의 초기 단계들에서 잉글랜드의 울타리 치기 운동은 농민층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이들을 토지에서 쫓아냈다. 산업화는 남반구 나라들에 "발전"인 것으로서 도입되었다.

오늘날 울타리 치기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관습적인 토지 공유재산에 의존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농부들과 목축인들 수천만 명의 소유를 박탈하고 있다.

새로운 울타리 치기와 토지 장악

토지의 전유와 재분배라는 역사의 순환주기가 있다. 식민지 지배는 폭력적 토지 수용에 기초를 두었다. 그리고 지금 재식민지화로서의 세계화는 다시

17) Peluso N.L. & Lund C., New frontiers of land control: Introduction,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4, 667-681, 2011.
18) See Appendix I, Point 1

한번 인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세계의 다른 부분들에서 방대한 토지 장악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울타리 치기"의 파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들과 자원 수요의 증대된 파괴력 때문에 과거의 울타리 치기보다 더 심한 영향을 농촌 공동체들에 가하고 있다.

토지는 투기적 투자, 투기적 근교확장개발, 광산과 공장, 고속도로를 위해 장악되고 있다.[19]
이 투자들은 '빈땅'이라는 같은 서사(敍事)로 정당화된다. 이에 따르면 소농들은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 거짓된 생산성은 상품 생산의 단선적 추출적 논리에서 측정된다. 토지 거래들은 소토지보유자들의 추방, 부차적 이용자들의 권리의 결여, 공식적 권리들이 없으나 관습적이고 공동의 권리들을 가지며, 수년간 그 토지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의 축출을 의미해 왔다.
공적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소농들의 토지를 장악하여 빈민의 대량 소유 박탈을 일으키고 있다. 쫓겨남, 채무, 농민 자살은 오늘날 인도 농촌에서 빚, 토지 저당, 토지 수용으로 인해 1995년 이래 29만 천명 이상이 자살을 하여 인도 농촌의 특징을 이룬다. 2009년 대규모 농지 투자는 1년이 안되는 기간에 5천600만 헥타르에 달했다.[20] 예를 들어서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 후에 30개 이상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 중국은 기초적 식용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면서 높은 가치의 작물들을 수출하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는 글로벌 시장들에 대한 위험한 의존성을 피하고 대규모 농장들에 의존하는 이문이 높은 농업 생산에 투자함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것이다.

인도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 민간 주택건설사들을 위해 다량의 토지를 수용하는 일로 농부들과 농촌 공동체들과 제1선에서 싸우고 있다.[21] 이런 정책들은 가난한 공동체들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저비용에 토지 자원을 전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사여구로 '발전 목적의 이전'이라고 성격이 규정되는 인간 공동체들과 문화들의 뿌리 뽑기가 실행되고 있다. 인도에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영향 분석과 부흥 체계들을 살펴보기 위한 수년간의 작업이 있어 왔으나 이는 우리 시대의 광포한 토지 기갈이 들린 경제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소유 박탈

19) See Appendix I, Point 2.
20) The World Bank report, 2010.
21) See Appendix I, Point 3 on Ordinance 2014 - Land Acquisition Act.

은 취약계층들, 특별히 여성들의 말해지지 않은 곤고(困苦)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돌려지고 있는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가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식량 불안정을 창출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토지 거래들은 토지 소유권과 접근권을 장차 더욱 집중시켜 아시아에서 행해진 것만으로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의 농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익들을 뒤집고 있다고 한다. 더 심한 토지 경쟁은 또한 토지 가치를 높여서 농촌의 빈민을 토지 시장 바깥에 방치한다.[22)]

서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공동체의 통제 하에 있어 왔으며, 이는 점차 세계은행, 새천년도전(Millenium Challenge), 식량 및 급양을 위한 G8 새로운 연맹(New Alliance) 등의 다양한 체계들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토지 개발 구상(Land Development Initiative)와 자발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세네갈의 국가토지개혁위원회 같은 국가적 노력의 형태로 소농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차를 향한 대규모의 압력이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든 라틴 아메리카에서든 소농 부문에 있는 자들과 이윤의 측면에서 토지를 바라보는 자들 간에는 괴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토착 공동체들에게 토지는 사회경제적 안보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원천이다.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교환가치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생산적인 실물 자산이다. 여전히 광범위한 화폐화되지 않은 물물교환 경제들의 경우에 그것은 생존의 기초 자체다. 그것은 또한 장소감각,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안보의 핵심이기도 하다.

부유한 구매자에게 토지는 단지 투자의 한 형태이거나 기껏해야 그 경제적 가치가 토지 자체를 경작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일 뿐이다. 게다가 인프라나 산업화의 이름으로 자신의 토지를 잃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기업이나 정부가 보상으로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숙련과 경험을 지니지 않는다.

"새로운 울타리 치기"와 토지 장악은 또한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의 외주

22) See Appendix I, Point 4.

화의 결과로 생겨나는데, 이를 위해 특수경제구역[23]이 여러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들, 예를 들어 인도와 중국에서 버섯처럼 생겨났다. 이는 특히 교외지역에서 상공업단지를 위한 토지수용, 교외확장개발을 초래하여 이 나라들에서 커다란 토지 분쟁들을 촉발해 왔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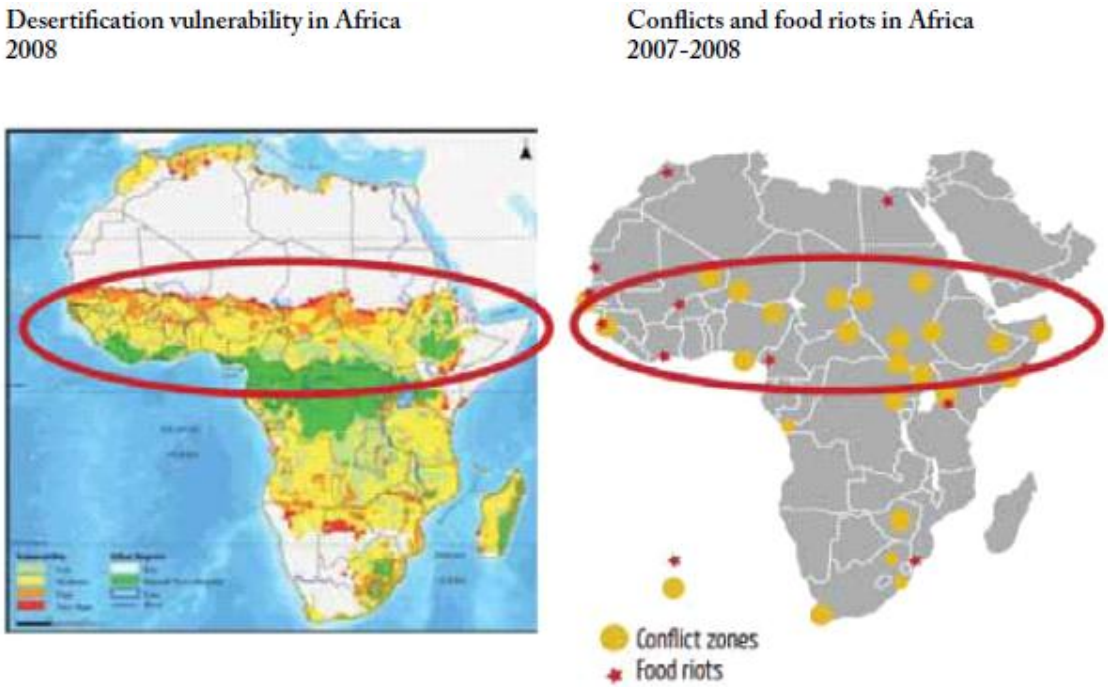
토질악화, 기후변화, 강제이주, 생겨나는 분쟁들

지배적 패러다임이 세계에서 커가는 분쟁들을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폭력으로 치부하는 동안, 토지 장악에 더하여 토질악화가 아주 흔히 이 분쟁들의 뿌리에 있다.

한 민족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의 흙을 파괴하는 것뿐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서 분리될 때, 민족들과 공동체들을 흙에 연결해 주는 복잡한 그물망이 찢어지고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다. UNCCD에 따르면, 지난 60년의 기간 동안 국내적 분쟁들의 40%는 토지 및 천연자원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수많은 국내 분쟁들과 국가에 의한 천연자원 통제와 할당 간에는 강한 연결고리들이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과 기근에 노출되는 것은 취약한 국가들의 실패 그라고 지역 분쟁들로 가는 문을 연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식량과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구체적으로 가뭄)은 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25]

(출처-UNCCD)[26]
금융위기, 식량위기,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융합은 여러 가지로 흙과 민족들에게 영향을 가한다. 전쟁들과 쌍을 이루어 이것들은 국내적, 국외적으로 땅을 이탈한 사람들의 물결로 나타난다. 뿌리가 뽑힌 사람들은 다른 착취 행위들에 취약하며 그들이 한때 알았고 수호했던 흙들은 전유, 약탈, 일반적 위해(危害)에 노출된다. 2020년경에는 사람들이 희소한 생산적 토지 자원에

23) 같은 나라의 다른 영역들과는 다른 특수한 경제적 규칙들을 가진 지정된 영역들. 게다가 이 규칙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경향을 지닌다. 특수경제구역(SEZ)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회사가 조세 인센티브 그리고 저율 관세를 납부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24) See Appendix I, Point 5.
25) UNCCD - Desertification - The Invisible Frontline, 2014.
26) 아프리카 토지의 3분의 2가 이미 어느 정도 토질악화되었으며, 토질악화는 적어도 4억8천5백만명, 아프리카 인구의 65%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These three maps of vividly show the concentrations of past terrorist attacks, food riots and other conflicts in areas thatare vulnerable to desertificatio.

Desertification - Inaction, recip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haos
(Source - UNCCD)[26]

그림 7 사막화 - 무기력, 국제정치적 경제적 혼돈을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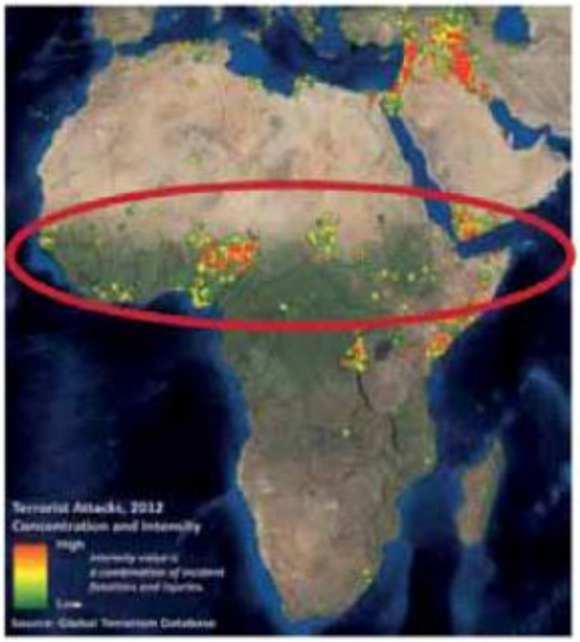
의존하는 농촌 지역들에서 토질 악화는 강제 이주의 원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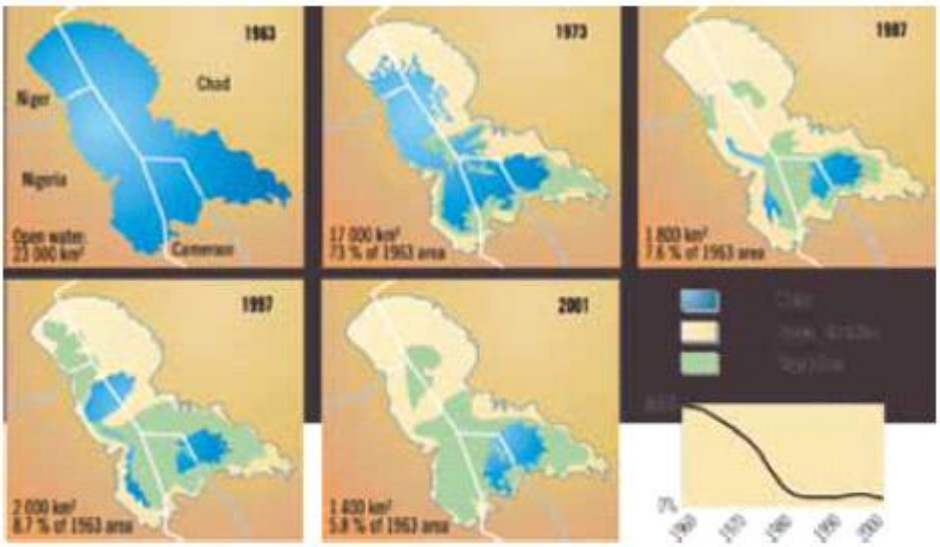
42%로 추산되는 가구들은 흉작이 일어날 경우에 계절적 이동을 강화하는가 하면 17%는 농사를 망치면 이주하고 13%는 극심한 한발과 같은 강력한 기후 관련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살던 곳을 떠난다. 2050년경에는 2억 명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고향을 등진 환경 이주민이 될 수도 있다.[27)]
2011년 시리아 봉기 이전에 시리아 토지의 60%는 농업이 약 12,000년 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농업이 시작된 곳인 토지에서 흉작을 유발한 극심한 오래 지속된 한발을 겪었다.

극심한 한발과 같은 극단적 사태들은 지구 전체적 기후변화의 한 측면이다. 한발의 악영향은 지속불가능한 농업의 진흥을 통한 토지와 수체의 지속불가능한 사용에 의해 악화된다. 80%가 넘는 작물이 흉작이 되고 75% 이상의 가축이 죽어서 생계 기반을 제거하여 1백만 명이 넘는 농부들과 목축자들이

27) UNCCD, Desertification - The Invisible Frontline, 2014.

Terrorist Attacks
2012





Lake Chad - decrease in area 1963, 1973, 1987, 1997 and 2001. (Source - UNEP22)

도시들로 대량 이주할 수밖에 없게 해서 사회적 불안정과 나라의 내전을 불러오는 데 기여했다.[28]

이는 국내적으로 650만명의 난민을 만들어 냈고 3백만 명의 난민이 이웃 나라들로 옮겨갔다.[29]

---

28) Zastrow M., Climate change & Syrian conflict, Nature - Intern. weekly journal of Science, 2015.

29) Syrian Refugees - A snapshot of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by the Migration Policy Centr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2013.

나이지리아에서 보코 하람은 극단주의 종교 운동으로서 소개된다. 그러나 UNCCD의 수장인 뤼크 나카쟈(Luc Gnacadja)가 증언한 것처럼 “챠드 호수의 고갈은 분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 북나이지리아의 상당 부분에서 무슬림 목축자들은 줄어드는 물의 공급량을 놓고 기독교인 농부들과 경쟁한다. 이른바 종교적 투쟁은 실제로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사헬 벨트 지대의 보코 하람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은 말리와 수단에서도 거의 같은 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이 농부, 어부, 어류 판매상과 목축자로서 고용되어 돈을 벌던 사람들 또는 돈을 벌었을 사람들이 지금 보코 하람에 징집되어 그들 중 다수가 테러분자 그룹의 치명적인 야간 습격전에 참가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접근권의 최소한의 안전보장도 없이 투자를 통한 토지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 평화가 하나의 전제조건이다.[30]”

석유 정점과 쌍을 이룬 에너지 위기는 다르게는 프랙킹으로도 알려진 수압파쇄법을 포함한 극단적 추출을 초래해 왔다. 원유를 얻기 위해 문자 그대로 통을 문질러 닦는다(scrapping)는 것은 그 산물이 발견되는 어느 영역이든 이는 개발을 행하는 석유 회사들과 투기자들에게 만만한 표적이 됨을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영역도 신성하지 않다.

석유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내기 위해 아래로 파 들어가고 사용연한이 지난 자기들의 인프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시추공이 토양에 일으키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마당에 화석연료를 마개를 따지 않은 채로 놔두라는 요구는 단순한 외침으로 남는다. 광업과 원유 추출로 인한 토양오염은 전에는 경작 가능하던 토지에서 영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31]
복구는 어떤 경우들에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영토 확장을 위해서든 흙과 토지에 대한 함의는 다중적이다.

30) RTCC, Global warming raises tensions in Boko Haram region, 2015.
31) UNEP, Report on th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 of Ogoniland Report, 2011.

단선적 경제에서의 토지: 토질악화 대 복구
“단기(short-term)의 횡포”

경제적 과정들에 대한 단선적 시야에서 자원은 투입물이고 재화는 전환과정의 산출물이다. 소비되지 않는 것의 운명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경제적 거래에 외부적이며, 그래서 유관한 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단선적 경제의 전망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순환주기상의 비용과 수익이다. 인공 투입물, 토지와 물은 비용이고 시판 가능한 산물들은 수익이다. 생태계 서비스들, 생물종 다양성, 식량과 사료의 영양 가치는 사업순환주기 상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측정될 수 없으므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사업순환주기 말의 토질악화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지만, 이어지는 사업순환주기들에서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생산성으로 전환한다. 비용이 수익보다 더 높아질 때에는 토지는 방치되며, 쓸모없는 도구가 된다. 화석연료는 토지에 생명을 주는 복잡한 생태적 과정들이 인공적 자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인공적 자원이 구입되는 통로인 시장 교환은 자연적 순환주기들을 대체한다. 토지는 저열화괴고 토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지식과 관행은 망각된다.
희소성은 이용 가능성과 필요에 의존하므로 인위적인 것이다. 단선형 경제에서 사업순환주기들이 자연적 순환주기들을 재촉하므로 농업생산은 희소성을 발생시킨다.

늘어나는 인구는 식량, 에너지 및 물에 대한 수요를 올리므로 체계에 압력을 가한다. 단선형 경제는 증대된 압력에 증대된 자원 추출과 증대된 폐기물로 대응한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경에 우리는 식량을 60% 더 필요로 할 것이고, 에너지를 50% 더 필요로 할 것이고 물을 40% 더 필요로 할 것이다.[32] 이런 일이 주요한 교란들 없이 일어나리라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소성은 불평등, 분쟁, 폭력의 증대를 수반한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파국의 발생을 늘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추세들의 심화를 회피하려 한다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사업순환주기들은 자연적 순환주기들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순환경제의 원칙이다.

32) ONU, Radical shift in agriculture critical to making future food systems smarter, more efficient, 2015.

토지 복원, 토지 개혁, 토지 협치

토지보유 제도들은 누가 어떤 천연자원을,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 준다. 그 제도들은 작성된 정책과 법률 그리고 불문(不文)의 관습과 관행에 기초를 둘 수 있다.
토지 장악은 토지 보유상의 협치가 약할 때 생겨난다. 책임성 있는 협치는 사회에 의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보유 권리들에 공식적 인정이 주어질 것을 요구한다. 토지보유 상의 협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FAO는 토지, 어장, 삼림 보유의 책임 있는 협치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이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CFS)에 의해 2012년에 비준되었다.
자발적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합법적 보유권들에 법적 인정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합법적 보유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보유권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발적 가이드라인은 국가들이 자국의 전략, 정책, 입법,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치를 위한 진전된 원칙들을 정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발적일 뿐이다.
부패한 정부들 또는 기능수행을 못하는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준칙을 실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감 있는가? 시민 사회가 그 정부들에 압력을 넣어 그 원칙들을 채택하고 감독하도록 할 역량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예:
토지 소비 방지 법안이 이탈리아의 도시계획가 그룹 에디부르그(Eddyburg)에 의해 기초되었으며 이는 또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 가능하다.

주요 사항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비 도시 영역은 생태계, 문화적이며 환경적인 존재로서 법에 의해 보호된다.
2) 도시 토지는 역사적 중심지와 최근의 변두리들로 구성되며, 경작되지 않거나 방치된 구역들은 도시화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 비 도시화 영역에서는 어떠한 신규 토지 소비도 정착이나 인프라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어떤 변화이든 기존의, 최근의 그리고 가용한 도시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도시화된 영역은 관련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러 맥락에서 식량에 대한 권리다. 토지에 대한 접근권은 기아(飢餓)의 주요 결정인자들 중 하나다. 여러 나라들에서 토지 분배의 불평등은 많은 경우에 규범이다. 토지 개혁은 전세계 소농 운동들의 핵심 요구다. 농지는 농부들을 필요로 하는데, 농부들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농부들에게 그들의 중심 역할을 되돌려 주고 청년들이 땅에 다시 연결되도록 장려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전망과 지구별 위의 모든 곳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
가족 영농은 지속가능성의 원칙들에 기초를 둔 가장 일관성 있는 농업생산 모형이며 지방 경제들과 지방 공동체들을 진흥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추가로 전일론적 토지관리 실천은 토지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적 유대에 기초를 두며, 세계의 풀뿌리 공동체들에 대한 생태적으로 재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관리다.

여론 형성자들은 소농들이 경제적 능률이 낮고 대규모 농장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가족농이
(1) 토양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생산적으로 만들면서 더 지속가능하며
(2)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1차적 고용의 원천이며
(3) 대부분의 남반구 나라들에서 오늘의 경제(오이코스)의 기초로서
(4) 또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보전하는 것
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의 기초이며 환경 그리고 생물 종 다양성 관리의 기초다. 토지는 가족농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토지에 대한 접근권은 가장 통상적(通常的)인 관심이다. 2014년 UN이 정한 가족농의 해 동안 70%의 식량이 소농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이 명백했다.

행동 요청: 지역 차원에서 경관(景觀) 관리자들은 토지가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장하고, 흙의 소비에 한계를 설정하고, 경관 차원에서의 토지 사용 행위들 간의 부정적 상충관계를 회피하고, 생태적 인프라들을 유지 및 복원하고 토지 복원을 위한 참여적 과정들과 사업들을 통해 토지 관리의 직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진흥해야 한다. 국가와 국제 수준에서 행정부들은 토지 사용에 미치는 식량 체계들과 정책들의 영향을 감시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가 기아와 식량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토지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다. 농업 생산성에서의 발전도상국들에서의 100%를 포함하여 60%로 추산되는 증대가 2050년까지 필요할 것이다.[33] 숲과 경관 복원을 위한 지구 전체의 잠재성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평가의 결론은 전세계적으로 저열화된 토지 20억 헥타르가[34] 여전히 경관 복원의 잠재성을 지니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숲과 나무들이 산림농업과 소농 농업을 포함한 모자이크적 복원이라는 것이다.

농촌 공동체들과 농부들은 장기적인 사회적 목표들의 감각을 가지고서 적절한 농경지 사용과 관리로 토질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토지에 대한 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일이다. 영농인구와 농촌 인구가 소수가 된 나라들에서도 토지 이용과 관리는 소수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며 공동체들과의 연결성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관(景觀)의 생태적 복원은 파급력이 큰 사회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세계의 저열화된 토지의 단 12%만이 생산을 하도록 복권이 된다면, 우리는 2억명의 사람들을 추가로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며, 농부들의 소득은 연간 400억 US만큼 상승할 것이다.[35]

사막화와 토질악화의 심각한 상태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36]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지방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을 자본화하고, 모든 수준에서 과학과 정책 간의 괴리에 다리를 놓고, 지속불가능한 토지사용 유형들을 진흥하는 왜곡적인 보조금들을 추방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토양을 지구 전체의 공유물로서 돌보기 위한 유효한 틀을 세우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는 토질악회의 주요 가속인자다. 적응과 회복력 구축은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들에서 토지와 흙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빈곤층 친화적인 축이며, 새로운 기후 협상이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려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0년대에 “뉴딜”의 일부로서 실업자 청년층을 토지 복원 일을 하도록 투입하고 그래서 대공황의 경제 위기와

33) FAO, World Agriculture Toward 2030/2050, 2014.
34) World Peace Institute, Global Map of Forest & Landscape Restoration Opportunities.
35)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Better Growth, Better Climate: The New Climate Economy, Report, 2014.
36) Target 15.3 of Goal 15.

황진(Dust Bowl)의 생태 위기를 둘다 대처한 시민 보전단(Citizens Conservation Corps)를 도입하던 황진(Dust Bowl) 기간 중에 직면했던 것보다 더 심하고 더 광범위한 비상사태를 직면하고 있다.

행동 요청: 실업 위기에도 대처하면서 지구별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발걸음 중 하나는 뉴딜의 시민보전단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토지 복원을 위한 건설적 사업에서 기회들을 창출함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의 뉴딜은 새로운 농업, 새로운 경제,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다. 생태적 복원을 위한 지구별 시민단(Planetary Citizens Corps for Ecological Restoration)이라면 흙을 원기회복케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평화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그것은 땅바닥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지구별을 향해 자라날 것이다. 그 재원(財源)은 토지와 흙의 파괴에 연루된 모든 행위자로부터 토지 복원과 흙의 원기회복을 위해 세금을 걷음으로써 지방 수준에서 지구 전체 수준까지 적용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기초를 둘 것이다.

흙 - 생명의 기초

"오 지구여, 내가 그대로부터 파낸 것이 속히 뛰어올라 다시 자라나게 하오. 오 정화자여, 내가 그대의 긴요한 장기들과 심장을 찌르지 않게 하오." - 아타르바 베다

역사는 여러 사회들과 문명들의 운명이 우리가 흙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흙과의 관계를 반환의 법칙을 통해서 맺고 있는가 아니면 착취와 추출의 법칙을 통해서 맺고 있는가? 흙의 건강과 안녕을 모르고 흙의 비옥성을 갱신함 없이 그것을 착취한 문명들은 흙과 함께 사라졌다.

흙과 토지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계획수립의 중심에 가져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긴요하다. 인간(humans)이란 말과 진흙(humus)이란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37] 대부분의 지속가능한 문화들은 그 모든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땅을 어머니 지구(Terra Mater)로 본다.

37) hum-이란 어근은 땅이나 흙을 말하지만 또한 "humanus"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최초 조상들이 인간을 흙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았음을 시사해 준다.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 또는 남자를 뜻하는 말로서 이는 흙, 땅을 뜻하는 "아다마흐"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들은 자연의 선물들을 받는 것에 감사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들을 통해 빚을 갚는다.

전세계에 걸쳐 현대 사회들은 흙이 침식되고, 저열화되고, 중독되고 콩트리트 아래 묻히고, 생명을 빼앗기면서 붕괴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그 생활이 흙에 의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뿌리가 뽑히고 있으면서 난개발과 기후재앙 때문에 난민 신분층, 생태적 난민층을 불어나게 하고 있으며, 자원쟁탈전쟁 때문에 전쟁 난민들을 불어나게 하고 있다.
흙으로부터의 소외는 생물 종 다양성의 침식, 토양 저열화, 사막화, 경판화(cementification) 그리고 기후 혼돈의 생태적 위기들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인간 위기의 뿌리에서 의미, 정체성 그리고 목적의 상실에 의하여 창출되는 폭력과 분쟁의 위기들도 초래하고 있다. 흙에 대한 폭력은 사회 내의 폭력으로 표출된다.

흙은 살아 있고 우리 생명의 기초다. 그러나 우리의 흙과의 관계성에도 흙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파열(破裂)이 있다. 우리와 흙과의 관계에서의 파열은 공유지의 울타리 치기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통한 토지의 접수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를 둔 산업적 농업의 부상(浮上)으로 계속되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은 살아 있는 흙을 창조하는 살아 있는 과정들에 대한 무지와 맹목성을 만들어냈다. 토양 식량 망(Soil Food Web)에 초점을 두는 대신, 알버트 하워드 박사가 NPK 정신구조라고 부른 것인 화학비료라는 외생적 투입물들에 집착해 왔다.[38] 살아 있는 흙의 생물학은 공업화학으로 대체되어 왔다.

흙은 먼지로 치부되어 왔고, 불활물, 오직 화학물질을 붙잡아 놓기 위한 빈 용기로 만들어져 왔다. 생명과 다양성의 수평적 망은 부과된 단작재배의 수직적 위계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흙, 토지 그리고 땅은 단순히 투기되고 장악되어야 할 상품으로 전락해 왔다.

흙은 지구 상의 지극히 다양한 서식지들 중 하나이면서 지구 위의 모든 생물 종들의 4분의 1의 집이다. 흙에서 발견되는 유기체 수백만 종은 흙의 비옥성의 원천이다. 흙 1헥타르는 15톤의 유기체를 함유하며, 이는 평방미터당 1.5킬로그램의 생물체로 환산된다.[39]

---

38) Howard A., An Agricultural Testament, 1943.

흙은 영양소와 물의 저장, 여과, 전환, 탄소 저장과 순환, 서식지, 종과 유전적 다양성의 제공 같은 생명을 위한 결정적 생태계 서비스들을 제공해 준다. 흙에서 가장 큰 바이오매스는 미생물, 균류, 원생생물들로 이루어진다. 토양 미생물은 토양 구조를 유지하며 죽은 동식물들이 영양소로 생분해되게 하는 데 기여하며 질소를 고정한다. 지렁이, 개미, 흰개미 그리고 약간의 작은 포유류들은 견고한 토양체와 숨구멍들을 형성하여 더 작은 토양 유기체들을 위한 서식지를 만들어주며, 토양 구조들이 미생물 활동의 핫스팟이 되면서부터 다른 토양 유기체들을 위한 자원의 가용성을 규율해 준다.[40]

모범 실무: 사헬 지역에서 농부들이 관리하는 토양 복원의 성공담. 1970년대, 80년대의 극심한 가뭄과 급속한 인구증가는 사헬의 농지를 크게 저열화시켜 여러 토종 나무들의 상실을 초래했고, 흙이 불모지가 되고 침식되도록 했다. 나무들의 상실과 더불어 그 지역을 수백년 동안 비옥하게 유지해 오던 지식, 전통, 관습도 사라졌다. 토지와 지방민의 생계를 구하기 위해 많은 전통적 관리의 관행들이 되살려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농부가 관리하는 자연 재생(FMNR) 기법이다. 농부들은 땅 밑의 뿌리 망에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싹트는 싹들을 잘라내어 삼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연료, 식량 또는 동물 사료의 원천을 이용할 수 있다. 수목들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들을 맺고, 질소를 방출하고 땅이 바람과 비에 의해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흙을 복원하는 것을 도와준다. 재배되기는 하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숲은 화목과 뿌리덮개의 지방에서의 원천을 이루어 식사용 조리와 집안 청소를 위한 연료를 모으는 데 쓸 시간을 줄여준다. 그 실천은 또한 연료용 나무들이 침엽수들로 대체되고 농부들에 의해 보살펴지면서 삼림파괴를 줄여준다. 니제르에서 여러 마을들은 20년 전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나무들을 보유한다. 정치적 분쟁으로 정부가 주의를 분산시킨 가운데 숲의 관리는 지금 거의 완전하게 FMNR로부터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지방 농부들에게 맡겨진다.

흙은 가장 큰 탄소 침적처(sink)이며,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흙은 동시에 온실가스들의 원천이면서 침적처다.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대기중보다 두 배가 많은 탄소를 함유하며, 4조 톤이 넘는 탄소를 보관한다.[41]

39) Global Soil Week, Soil Atlas, 2015.
40) European Commision Technical Report, Soil Biodiversity: Functions, Threats and Tools, 2010.

비교해 보자면, 숲은 목질 바이오매스로서 3600억 톤의 탄소를 저장하며[42], 대기(大氣)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8천억 톤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 이는 흙이 나무들보다 10배가 넘게 탄소를 함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책임 있는 관리가 행해질 때 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침적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43]

우리의 살아 있는 흙에 대한 위협 요인들

흙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식량의 기초다. 우리 식량의 99%는 흙에서 온다. 그러나 이 살아 있는 재생가능 자원은 위협을 받고 있다. 침식, 저열화, 사막화, 빈약한 토지관리, 지속불가능한 영농관행, 에너지 생산의 압력들로 재생가능하지 않게 되고 있다. 비옥한 흙들이 통제 불가능한 도시화와 경판화, 인프라와 광업의 압력 아래 사라져 가고 있다. 추출적 농업은 표토의 대량 상실을 가져온 미국에서의 1930년대의 유명한 황진 (Dust Bowl)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
세계는 매년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때문에 비옥한 표토 약 240억 톤을 잃고 있다. 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흙은 지구 표면의 12%밖에 되지 않으며, 한 인간세대 안에 복구될 수 없다. 비옥한 진흙층 1인치(2.5cm) 두께의 형성에는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위에서 약 500년이 걸린다.[44]

수십년에 걸친 공격적인 회석연료 기반의, 화학물질에 기초를 둔 산업 단작 농업의 실행은 흙에 있는 미생물과 광물질 간의 조화를 교란해 왔다. 화학적 단작 농사는 또한 흙을 가뭄에 더 취약하게 하고 식량 불안정에 더욱 크게 기여한다. 더욱이 비이오 연료와 지속불가능한 소비 습관을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비옥한 흙을 할당하는, 시장이 추동하는 선호는 토지를 식량 생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으며, 토지 희소성과 토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흙은 자연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는 속도보다 열 배에서 40배 빠르게 상실되어 가고 있다.[45] 이는 다음 20-50년에 걸쳐 식량이 30% 적게 산출될 수 있

41) Institute for Advanced Sustainability Studies, Fertile Soils: Crucial to the Fight to Hunger and Climate Change, 2012.
42) ibid.
43) Global Soil Forum, Fertile Soils, 2013.
44) Global Soil Forum, Fertile Soil, 2013.
45) Pimentel D., Comprehensive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2006.

음을 의미한다.[46] 토양침식은 흙의 영양소들을 쓸어내 버린다.[47] 이 영양소 상실의 비용은 연간 200억 달러다. 석유에 기반을 둔, 화석연료 집약적인, 화학물질 집약적인 산업적 농업은 흙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과정들을 촉발시켜 왔다.

첫 번째로, 산업적 농업은 단작농법과 화학물질을 통해 살아 있는 흙을 파괴한다. 둘째로, 석유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은 화석연료 투입을 집약화하고 비생산적 체계를 생산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거짓된 생산성 척도를 만든다. 속임수는 창조적인 생산적 일을 상품으로서의 "노동"으로 전락시켜 사람들을 "투입물"로 계산하고 화석연료는 투입물로 계산하지 않는 데 있다. 투입물로서의 사람들은 토지에 더 적은 사람들이 일할수록, 농업이 더 "생산적"이 됨을 뜻한다.

농부들이 파괴되고, 농촌경제들이 파괴되고, 토지에는 사람들이 비게 되고 독성물질들로 가득 찬다. 흙과 종 다양성의 관리인이자 갱신자로서의 농부들의 창조적인 일은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에 의해 대체된다.
토지의 관리인이면서 살아 있는 흙의 공동 창조자로 일하는 창조적인 일은 식량 체계에서 "투입물"이 아니라 좋은 영농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노동"으로 전락될 수 없다. 비옥하고 살아 있는 흙을 창조하고, 보전하고, 젊게 하는 것은 문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것은 재생적 산출물이다.

쫓겨난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든다. 이는 자연적이거나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적 농업 설계의 일부다. 도시들의 폭발은 흙을 콘크리트 아래 묻는다. 30개의 축구장에 상당하는 면적이 매분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의해 소비된다. 도시 인구 증가의 현 추세가 지속한다면, 그리고 도시 근교 확장개발이 최고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세계의 전체 도시 면적인, 불침투성의 토양 복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2030년이면 120만 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날 것이며[48], 이는 남아프리카의 면적과 같은 확장이 된다.
이는 2000년도 이래로 지구 전체 도시 토지면적이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일 것이다. 농업용으로 가장 가치 높은 흙이 흔히 이런 식으로 상실되는데, 이

46) World Economic Forum, Times, What If the World's Soil Runs Out?, 2012
47) 1톤의 표토에는 평균 1-6kg의 질소, 1-3kg의 인, 2-30kg의 칼륨이 있는 반면, 침식된 토지의 흙에는 단지 0.1-0.5%의 질소만이 있다.
48) The World Bank, Urban Development: Sector Results Profile, 2014

는 도시들이 고도로 생산적인 농토 위에 보통 건설되기 때문이다.

모범 실무: 토지 소비를 막는 전국 운동은 2008년 이탈리아에서 창설된 것으로서 거대한 쓸모없는, 위에서 부과된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건축 프로젝트들로서 흔히 참여적 의견합치 없이 승인된 프로젝트들의 위험에 처한 영토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 운동들의 네트워크다. 이 운동은 2012년부터 전국에 걸쳐 사용되지 않는 건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옥한 토지 위에 새로운 건설사업을 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서 가용한 잠재성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경관을 구하기 위한 전국 포럼 - 영토를 수호하라"의 일부다.

생태과학과 고래(古來)의 지혜는 모든 생명이 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진보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흙을 파괴하고, 파묻고 소비하는가 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는 환상을 생각 없이 채택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도시화, 거대 광산, 거대고속도로 그리고 거창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비옥한 토양의 묘지다. 우리는 생명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흙을 돌봄 - 토양 복원과 토양 원기회복

흙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다. 그것은 반환의 법칙, 흙에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비옥성과 영양의 선물을 되돌려 줌의 법칙에 기초를 둔다. 흙에 대한 추출적 관계는 토양의 비옥성의 채굴에 기초를 두며, 선형 과정이다. 반환의 법칙 - 돌려줌의 법칙은 여러 사회들이 비옥한 흙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수천년 간 살아 있는 흙에 의해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왔다. 착취의 법칙 - 돌려줌 없이 취함의 법칙은 문명의 붕괴를 초래해 왔다. 토양으로부터 우리는 다양성, 상호성, 순환성, 반환의 법칙, 감사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이 생태적 원리는 우리가 분리된 각자이며, 지구와는 독립적이라는 거짓된 관념에 기초를 둔, 흙을 죽은 물질로 정의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에서는 망각된다.
모범 실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식의 예. 야쿠바 사와도고(Yacouba Sawadogo)는 1980년대부터 사막화와 가뭄에 의해 손상된 흙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방의 전통적인 영농 기법(zaï)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온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국 출신의 무슬림이다. 사와도고는 이

기법들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활동가이며, 지식, 제안, 그리고 종자들이 교환되는 모든 지역의 마을들로부터 농부들의 모임을 조직한다. 20년간 그의 일은 50에이커의 새로운 삼림의 창조를 가능케 했다.

어떤 과학기술도 흙에 있는 생명을 파괴하면서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녹색 혁명 또는 유전자 엔지니어링이 세계를 먹여살린다는 주장이 왜 거짓인가 하는 데 대한 이유다. 이 과학기술들에 내재된 것은 화학물질 투입에 기초를 둔 단작 농법들로서 토양의 생명을 죽이고, 토양 침식과 저열화를 가속화하는 조리방법인 것이다. 저열화되고 죽은 흙, 유기물질이 없는 흙, 토양 유기체가 없는 흙, 물 함유 능력이 없는 흙은 기근과 식량위기를 일으키며, 식량 안보를 창출해 주지 않는다.

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특히 맞는 말이다. 산업적 농업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의 25%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에 더 취약하다.[49] 유기 물질를 함유하는 흙은 가뭄과 기후상의 극단 사태들에 대해 더 큰 회복력을 가진다. 그리고 종 다양성 집약적 체계들을 통하여 유기물 생산을 증대함은 실제로 광합성 집약적 체계들로서 대기중으로부터 식물들로, 그리고 나서는 토양으로 반환의 법칙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태적 농업을 실행하고, 유기물질을 토양으로 돌려주고[50], 흙의 비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식량과 우리의 미래의 토대를 키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농부들이다. 유기 영농을 실행함에서 그들은 또한 물을 보전하고 대기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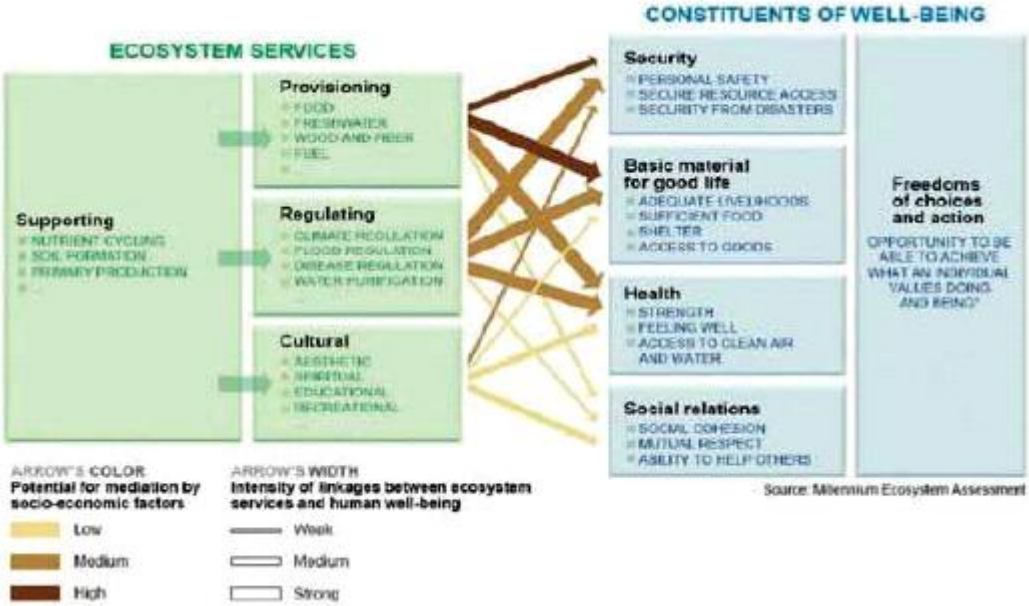
흙을 돌봄은 흙에 있는 살아 있는 유기체들을 돌봄을 내포한다. 유기물의 반환을 그 모든 다양한 형태로 최대화함은 흙을 위한 먹이를 늘리며, 식물의 영양소는 식물과 식량을 통하여 우리 몸을 위한 영양소가 되도록 토양 유기체들에 의해 증폭된다. 살아 있는 씨앗은 살아 있는 흙이 되고 살아 있는 흙은 살아 있는 씨앗을 재생산한다.

UNCCD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저열화된 토지 20억 헥타르 (남미보다 넓은

49) Capra F., Industrial Agriculture, Agroecology and Climate change, 2014.
50) Roulac J.,The Solution Under Our Feet - Regenerative Organic Agriculture, Ecowatch, 2015.

면적) 는 토지의 회복과 삼림 복원을 위한 잠재성을 가진다. 저열화된 생태계들의 흙을 복원하는 것은 연간 30억 톤의 탄소를 저장할 잠재성을 가진다. 이는 연간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까지 저장하는 것에 상당한다.[51]

세계의 경작되는 토양은 그 원래의 탄소 저장량의 50-70%를 상실했다. 그중 일부는 생산 목적이나 생태적 목적에 도움이 안 되는 버려진 농경지 5억 헥타르를 이룬다. 이 저열화된 토지들에서 흙의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식량 생산을 늘릴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10억에서 30억 톤의 탄소를 붙잡아 둘 잠재성이 있을 것인데[52], 이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1/3과 같다. 그리고 동시에 삼림파괴와 습지 파괴에서 나오는 추가 배출도 피할 잠재성을 가질 것이다.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흙은 가뭄과 기후상의 극단적 사태들에 대해 더 큰 회복력을 가진다. 그리고 종 다양성 집약적 체계들을 통하여 유기물 생산을 증대함은 실제로 광합성 집약적 체계들로서 대기중으로부터 식물들로, 그리고 나서는 토양으로 반환의 법칙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지구 그리고 흙과의 새로운 계약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흙이며, 우리는 흙에서 자라나며, 우리는 흙의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약 말이다. 이는 새로운 르네상스다. 새로운 르네상스는 흙이 살아 있고 흙을 돌봄은 농부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의 새로운 깨달음이다.

51) UNCCD, Land Degradation Neutrality, 2014.
52) Ibid.

건강한 흙에서 나오는 좋은 그리고 영양이 높은 식량은 땅의 돌봄과 흙의 돌봄이란 제1차적 과업의 부산물이다. 건강의 제공자이자 흙의 조성자로서의 농부들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될 때, 농업은 더 이상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그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보상을 받은 농부들은 토지에 머물 것이며, 흙의 난민으로서 토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와 산천 간의 새로운 균형이 흙과의 새로운 계약에서 자라날 것이다.

흙의 옹호, 사람들이 가정이라 부르는 장소들에 머물 권리들의 옹호, 문화적 다양성의 옹호는 우리 시대의 생태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위기들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인간의 진보를 얼마나 많은 시멘트가 흙을 묻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흙이 복구되고 해방되었나 하는 것을 기초로 측정하고 흙에서의 조화를 재확립하는 쪽으로 작업해 갈 필요가 있다. 살아 있는 씨앗과 살아 있는 흙은 살아 있는 그리고 지속하는 사회들의 기초인 것이다.

제3부

새로운 농업

세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농업은 농민적 농업과 고래(古來)의 영농 관행의 몇 가지 요소들을 최신의 생태과학 지식과 통합한다. 농생태학과 재생적 농업은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산업적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석유에 기초를 두며 그 결과가 흙으로부터 비옥성을 강탈한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적인, 화석연료와 화학물질에 기초를 둔 산업적 농업의 지배적 양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로운 농업은 건강하고 살아 있는 흙에 강하게 기반을 둔다. 흙의 비옥성은 잘 돌보아지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그것은 또한 생태적으로 집약적이고 생산적인 농업이다. 생산의 집약성은 외적인 투입물의 고조된 사용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다모작, 윤작, 바닥덮기(mulching), 그리고 흙, 작물, 동물을 균형잡힌 전체로 조합하는 잘 조절된 농학적 순환주기들에 뿌리를 둔다.
좋은 거름을 만드는 것은 번식용 사육과 선별이 동식물을 지방의 조건들에 적응시키는 것을 도와서 모든 자원의 최적 맞춤을 확보하게 하는 것임과 똑같이 필수적 인자다.

노동은 필요한 새로운 농업의 또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기둥이다. 산업적 농업이 노동 투입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새로운 농업은 그 반대의 일을 한다. 일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다시 중심이 된다. 고된 작업은 영리한 숙련 지향적 기법들의 설계를 통해 줄어들며, 필요한 에너지는 농장 자체에서 생산된다. 일은 이 새로운 농업에서는 지식의 담지자를 의미한다. 그것은 흙, 동물, 작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다. 이는 언제나 장소에 기반한 지식이다. 그것은 장소의 특정성을 반영한다. 그것은 또한 흙의 비옥도가 어떻게 더 증진되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이기도 한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침식, 저열화 그리고 수분 상실을 어떻게 피할지에 관한 지식이다.

토지, 흙 그리고 일의 중심성은 새로운 농업을 생산적 고용과 소득 발생의

중요한 원천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특별히 청년에게 삶을 영위할 새로운 매력적인 기회들을 제공한다. 여성의 역할이 근본적이다. 한편으로 여성들은 유전적 다양성의 관리자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식량의 가공, 변형 그리고 조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연결하는 주축인 것과 똑같이 토지와 소비를 연결한다. 영농의 유산은 여성들의 손에 있으며, 그들은 다음 세대들로의 지식의 전수자들이다.

새로운 농업은 가족농, 농촌 공동체와 공유지 같은 중요한 토지-노동 기구들에 뿌리를 둔다. 공유되는 목초지와 어장 같은 전통적 공유재산이 있다. 새로운 공유재산도 있다. 도시들에 다양화된, 신선한 그리고 고품질의 식량을 배달하는 자치적 농민 시장들이 그 예들이다. 건강한 흙,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종자 은행들은 새로운 또는 재활성화된 공유재산의 다른 예들이다. 이런 제도들이 함께 경제 수준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그것들은 또한 식량 주권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이룬다.
새로운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급적이다.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자원은 농장 자체 내에서 또는 농촌 공동체 수준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이는 특히 에너지에 대해 적용된다. 에너지의 순 수입자이기보다는 새로운 농업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것은 또한 지구별을 식히는 것도 도와준다.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온실 가스의 약 25%가 산업적 농업에서 온다) 탄소를 잡아두는 데 도움을 준다. 흙을 걸게 하고 흙의 생명작용을 강화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필요를 줄이는 것을 돕는다. 건강한 흙은 또한 생울타리 그밖의 미시생태적 구역 책정과 함께 질병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끝으로 잘 개발된 흙은 종 다양성을 지속시키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세계에 걸친 연구는 유기농이 흙의 탄소함량을 높여서 흙이 가장 큰 탄소 침적처가 되게 하고, 가장 큰 물 저장고가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헥타르당 매년 2톤의 탄소를 제거하는 평균 잠재성을 가진 유기농은 1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잡아둘 잠재성을 가지며, 이는 대기의 탄소를 350ppm 아래로, 평균 기온상승을 섭씨 2도로 유지하기 위해 대기중으로부터 제거될 필요가 있는 양에 상당한다. 토양 유기물의 1% 증가는 흙의 수분을 헥타르당 80.00리터만큼 늘려 줄 수 있다. 흙의 유기물이 5% 증가한다면, 흙의 수분은 에이커당 80만 리터가 늘어난다.[53]

53) Leu A., Practice and Policy for Building Resilience, Adaption and Mitigation of the

유기농을 통한 기후 회복력은 식량 불안, 물 불안, 기후 취약성 그리고 수백만의 토양 및 기후 난민의 창출에 대한 응답이다. 그것은 상승하는 분쟁 시대에 평화로 가는 길이다. 새로운 농업은 순환경제의 일부다. 그것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며, 자급적이며, 사회 전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도시-산천 관계에 순환성이 있다면, 경제 위기들은 훨씬 더 잘 대처될 수 있다. 새로운 농업은 또한 훨씬 더 적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도시들의 폐기물을 생산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농업은 여러 도시들에 제공해 줄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은 건강하고 좋은 그리고 매력적인 식량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도시의 주위 지역들에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환경도 제공해 준다. 이 환경은 아름다운 경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과 종 다양성이 풍부하며 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산천으로 가서 생명과 그 원천들에 관해 배울 풍부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새로운 농업은 또한 도시 농업의 발전을 지원해 준다. 이 모든 방법들로 새로운 농업은 선천을 활기를 띠게 해 주고 농촌 생활의 질을 증진해 주는 것과 똑같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도회지와 산천은 다시 서로 보완적이 된다.(도시를 산천에 대한 최종적 결별로 자리매김하는 단선적 견해에 비하여)
지구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농업은 작물-가축 통합을 통한 영양소의 지방 재생이용 집약화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세계 농업을 현재 특징 짓는 주된 불균형들의 일부에 대한 종식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예는 아르헨티나의 흙 또는 부라질의 세하도(Cerrado)의 흙에서 콩을 재배하기 위해 다량의 영양소를 추출한 다음에 토지, 물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퇴비의 다량 생산이 있는 곳인 공장식 농장들에 동물 사료로 공급하도록 유럽에 수출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불균형은 구릉지와 산간 지대의 거대한 초지는 놀고 있는데 (엄청난 사육장들에 위치한) 소를 먹이려고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옥한 경작 가능 토지를 사용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 세계의 빈민의 70%는 농촌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농업활동과 연결된다. 이런 커다란 농촌 빈곤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거대한 식량 제국들에 축적된 방대한 부(富)가 있다. 끝으로 또 하나의 불균형은 여러 나라들과 여러 지역

Agriculture Sector to Climate Change, Forum Mitigating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Indonesia, 2014.

들에서의 식량 생산의 불균등한 분배다.
새로운 연구들은 유기 농업 그리고 흙의 비옥성의 보호와 향상이 기후 파국으로부터 지구를 보전하는 것과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지평을 열어주었다. 유기질 시비(施肥)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모델 덕분에 탄소를 흙에 붙잡아 둘 능력은 세계의 모든 시민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모든 사람은 비옥성 갱신의 순환주기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모형의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

긍정적 추세

우리는 우리가 언급한 차이들, 격차, 그리고 불균형을 넘어서 가는 것, 새로운 농업을 창조하는 것이 길고 복잡하고 혹독한 이행과정들을 내포함을 잘 의식하고 있다.

그것들은 확실히 풀기 어려운 모순들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망한 출발점들도 있다. 이것들은 이 세계의 커다란 농촌 공동체들에서 그들이 개발해 온 외생적 투입이 적은 농업에서, 그들의 농생태학적 지식과 관행들에서, 새로 세워진 농민 시장들에서, 그리고 농민이 관리하는 관개 체계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지구 북반구에도 역시 유망한 출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잘 발전된 유기농업, 많은 지역 특색, 새로이 발견된 농업의 다기능으로 이는 영농과 더 넓은 사회 간의 새로운 다리들을 놓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재미 난 출발점은 경관 수준에서 종 다양성을 관리하고 동시에 단일 농장들의 면적을 훨씬 넘어서는 넓은 영역에서 생태적 균형을 수립하는 농민들의 새로운 토지 협동조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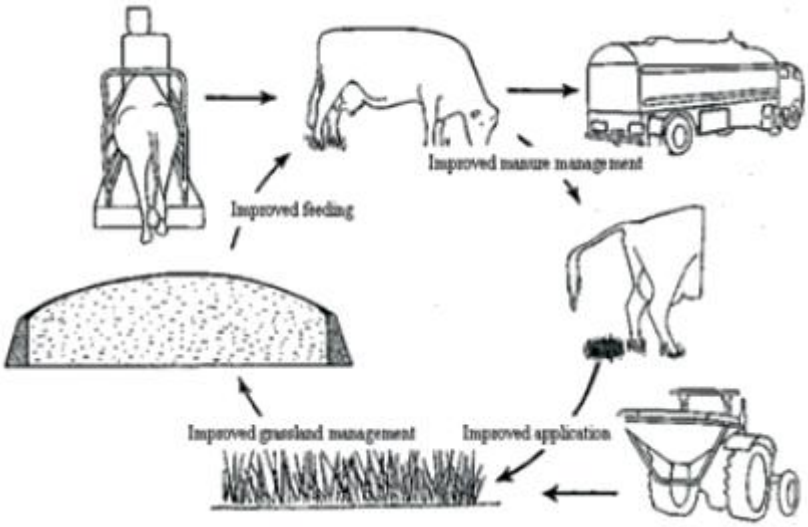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농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전격적으로 바꾸려는 커가는 의지다.

모범 실무: 네덜란드에서 북프리슬란트 우드랜즈는 1천 명의 구성원과 5만 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농부 조합이다. 경관의 유지와 종 다양성의 강화를 넘어서 일련의 다른 활동들이 조직된다: (부분적으로 많은 생울타리들로부터

나오는 목재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새로운 자율 형태들의 개발에까지 여러 활동들이 조직되는 것이다. 또한 농부들이 여기서 '순환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기도 한다. 이는 생물학적 농학적 순환주기들이 지방 농업의 토대와 힘에 편입되어 들어감을 의미한다.

흙은 이 순환 과정들에서 전략적이다. 농민 다운 방식으로 농부들은 자신들의 낙농 가축들에 의해 생산되는 거름(아래의 그림도 보라)을 개량하기 시작했다. 적응된 가축 먹이기는 이에 대하여 전략적이다.

이번에는 개량된 거름이 흙의 생명작용을 크게 풍성하게 하고 강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료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많은 경우에 화학비료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특히 개량된 흙은 전보다 더 높은 초본 소출을 내었다. 다소 늦추어진 예초 작업과 조합하여 이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단백질이 더 적고, 구조체가 더 많은) 섬유질을 내었다. 이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낮추었고, 수명을 개선했으며, 더 좋은 품질의 거름을 내었다. 이 모두는 농부들, 토지, 자연의 안녕에, 그리고 산물들의 품질에 크게 기여한다.



산업적 농업의 폐단

20세기 초부터 미국은 구유럽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의 농업에 잡종 옥수수를 퍼뜨렸다. 제2차세계대전 후에 마셜 플랜은 농업의 신 모형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율적 영역으로서의

농업의 종언을 나타냈다.

1950년대 이래 유럽에서의 농업은 공업과 농화학 업종의 부속물이 되어 왔다. 잡종 씨앗의 유포는 일반적 토지이용, 물, 천연자원 이용 체계의 침투, 농업적 종 다양성의 감소 등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였다.[54] 현재의 GMO (유전자 변형 유기체) 전략은 이 역사적 선례를 주목한다. 유럽 산천에서의 잡종 옥수수 생산의 높은 수확은 구 유기농을 뿌리 뽑는 데 사용되는 표준적인 담당자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잡종 씨앗들은 화학비료 없이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프랑스의 경제사가 폴 바이로흐는 1900년대 초에서 1985년까지 유럽의 비중이 큰 나라들의 밀 수확량이 세 배에서 네 배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55] 그러나 같은 시기에 화학비료의 소비는 독일에서 9배, 이탈리아에서 17배, 스페인에서 20배가 늘었다.
식량의 풍부함은 산업적 농업의 지지자들에 의해 찬양 받는 것으로서 기술적 기적이나 유전자적 기적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화석 에너지 자원의 약탈에 기초를 둔다. 유사하게, 녹색혁명은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세계 곡물 생산량을 250% 늘렸다. 그것은 큰 성공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농업에서의 화석연료의 사용은 5000%가 증가했다![56] 우리는 화학비료가 토양 미생물을 죽여서 흙을 불모로 만들고, 침식에 노출시키고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안다. 큰 중요성을 띠는 것은 유기농업, 진흙의 회복과 형성, 그 생태계, 흙의 안정화와 보전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현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컨대 도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와 유기물을 탄소를 붙잡아 두는 흙의 비옥함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퇴비로 전환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지구별의 온난화를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다.
도회지와 시골 사이의 유기물의 교환은 전세계에서 수세기에 걸쳐 규준으로 되어 왔다. 퇴비에서 얻어지는 거름은 잘 만들어진다면 가축의 거름보다 두 배 더 강한 위력을 가진다고 유명한 생명동태 농학자인 에렌프리트 파이퍼는 공언했다. 이 보편적 메시지는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이들의 일상적 삶에서 취해지고 있다.

54) Bernardi E., Il Mais 'Miracoloso', 2014.
55) Bairoch P., Les trois revolutions agricoles du monde developpe: rendements et productivite de 1800 a 1985, 1989.
56) Allen Pfeiffer D., Eating fossil fuels, 2006.

행동 요청: 자신들의 공동체나 도시에서 발생된 잔여 음식물과 모든 유기물을 퇴비로 전환하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공간들에서, 특히 버려진 공업지대에서 그곳이 건축공사장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채소 원예를 하는 등 유기농의 옹호자가 되라. 이는 또한 공기질의 개선을 도와주고 한여름의 기온을 낮추어줄 것이며, 폐기물을 분리하고 재생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유기질 부분은 토지를 오염시키는 대신에 흙을 비옥하게 하는 퇴비가 된다. 바이오매스는 농촌지역에서 가지치기로 잘린 가치들이 온실가스를 방출하도록 공기중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소각을 막아주게끔 수거되어야 한다. 산천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퇴비, 펠렛, 목재, 종이를 만들기 위한 셀룰로즈 등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 흙을 계속 갈아엎는 것을 피하는 농업 관행을 채택하라. (예를 들어: 영농 농업과 상승(相乘) 농업)

제4부

새로운 순환경제

흙은 재생가능 자원으로 취급될 때는 순환경제를 낳는다. 순환경제는 산출물 중 소비되지 않은 몫을 끝없는 순환주기들에 소중한, 다른 공정들을 위한 투입물로 취급한다.

순환경제는 시간과 공간 상의 모든 물적 측면들을 재생하여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촉진한다. 이는 처분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흙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와 강한 대조를 이루는 상태로 있다. 산업적 농업은 석유의 추출과 무기화학물질의 사용에 의존하여 자연적 순환주기의 일부로서보다는 무시해도 좋은 폐기물로서 취급되는 사용되지 않은 산출물을 가져오는 단선형 경제에 순응한다. 그것은 체제의 담지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생산을 소비로부터 분리하기를 선호하고 이는 불가피하게 사용되지 않은 물질의 낭비적 축적을 초래한다.

새로운 경제는 소비가 생산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산출물이 그것을 가공할 체제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흙은 순환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기초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살아 있는 유기체들의 발달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잉여가치보다는 생명가치를 창출하여 사용되지 않은 물질을 스스로 재생하는 영양소로 전환한다. 생태적 농업이 생산과정들을 흙의 비옥성을 회복시키고 사용되지 않은 유기성 산출물을 토지로 되돌려 주도록 조직하는 동안, 산업적 농업은 물질과 사람들에 대한 착취적 취급으로서 그 자신의 종말을 위한 전제들을 창출하는 취급방식을 촉진한다. 단선형 경제는 그래서 폭력적인 반면에 순환경제는 협동과 통합을 촉진하여 평화적인 것으로 변함이 없다.

현행의 지배적 모델은 천편일률식 접근법 안에서 불평등 그리고 금융, 경제 그리고 자연 간의 단절의 증가를 조장한다. 반대로 새로운 필요한 모형은 자연적 종다양성과 함께 “경제적 종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자연적 타이밍과 순환주기들이 인간 활동들에 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이한 시장들, 상이한 금융 체계들을 말한다.

금융과 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이런 견해에서 우리는 부(富)의 척도로서 GDP(총 국내 생산)의 사용을 극복하고 그것을 행복과 안녕 지수들로 대체해야 한다.

흙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경제는 반드시 지방적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환보다는 사용에 기초를 둔 자격부여에 관한 새로운 태도들과 법제들을 확립할 것이다. 도시화와 소비주의의 추동력은 사회들이 흙의 생물학적 건강의 초월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늦추어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비생산적 자본의 축적에 봉사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생산과의 더 직접적인 연결로 돌아갈 것이다. 흙은 부동산의 한 요소 또는 원재료로 간주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인정될 것이다.

금융

금융은 실물경제를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 그것은 인간 활동을 위해 자본을 제공하며 위험들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실제로 금융 활동들의 대다수는 거의 완전히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상실했으며, 돈에서 돈을 만드는 목적 그 자체로 돌았다.

투기자들이 요구하는 이윤율을 쫓기 위해 금융은 자연적 속도보다 상시적으로 높은 율로 성장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그런 성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달성되어 왔다. 첫째로, 어떠한 인간활동이나 천연자원이든 그로부터 점점 더 가치를 많이 추출하는 것을 통해서인데, 이는 인권, 환경적 규칙, 작업 조건에 대한 어떠한 책무도 낮추는 치열한 경쟁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로, 이윤이 사유화되고 금융 거품 폭발시의 손실 부담을 공중과 시민이 지게 되는, 거대한 금융 거품의 창출을 통해서다. 게다가 화폐가 직접 금이나 다른 소중한 자산들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불과 얼마 전부터라면, 오늘날 화폐는 점점 더 어떠한 가치나 인간 활동과도 떼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안녕(well-being)의 척도이곤 했는데, 이제는 화폐가 토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화폐가 모든 것을 측정한다. 그것은 금융의 또 하나의 모습이며, 우리는 화폐와 토지 간의 어떠한 접촉점도 상실했으며, 그 다음에는 화폐와

실물 활동들 간의 접촉점을 상실했다. 금융과 경제 사이에 날카로운 균열이 벌어졌으나 다른 한편 금융 활동들은 그 자체가 실물 세계와 분리된, 놀이(game)가 아니며, 그와는 정반대로 자연과 인간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이탈은 수익율을 볼 때 명백해진다. 흙은 우리 모두에게 식량과 종 다양성 면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수확물을 제공해 준다. 이 수확물들은 아무튼 투기적 금융의 탐욕스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더 높은 이윤을 위한 점점 더 커지는 기대는 흙의 착취에서 주된 동기들 중 하나다. 그것은 더 "지속가능한" 접근법을 찾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을 필요가 있다. 자연적 수확물이 동기(動機)여야 하는 반면, 금융은 흙의 순환주기들과 생산들에 적응해야 한다.

유사한 한 가지 논거는 타이밍에 관한 것이다. 농업 활동들은 계절별, 연별 또는 십년별 주기에 따른다. 다른 한편 금융 거래의 대다수는 천분의 몇 초 내에 해소되는 "고주파 거래"에 따른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들에서 행해진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자연적 타이밍을 투기적 금융의 기대에 맞게 굽히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새로운 순환경제는 자연의 순환주기들에 적응하고 들어맞을 수 있는 "슬로 파이넌스"(slow finance)를 기대한다.

파생금융상품 또는 특정지수 투자펀드(index funds) 같은 다양한 금융 수단들을 통해 금융인들은 식량과 상품 가격에 투기한다. 거대한 금액이 매일 하루 24시간, 증권거래소들을 통해 거래되어 불안정과 변동성을 유발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억 명의 농부들과 농민들이 금융 서비스와 신용에 대한 접근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현재의 금융 체제에 의해 심하게 상처를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금융 체제 내에는 절박하게 이윤을 찾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필요들과 활동들은 재원이 없어서 질식당한다. 사실, 화폐의 공급과 수요는 전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금융 체제는 현대의 가장 말도 안 되며 거시적인 시장 실패인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이윤을 향한 그리고 각각의 모든 인간 활동의 금융화를 위한 현대적 경주(競走)는 흙을 금융 자산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토지 장악은 그러한 금융화의 가장 명백한 예다. 흙은 공동의 재화이고, 그런 재화로 간주

되어야 하며, 그래서 어떠한 가능한 수익이라도 추출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금융 과정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는 그래서 그러한 불공정한 도박장을 폐쇄하고 금융을 사람들과 사회를 섬겨서 자연적 타이밍과 순환주기들을 존중하는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향해 나가는 것은 기술적 난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한편으로 지난 수년 간 몇 가지 제안들이 제출되어 왔다: 금융거래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분리, 파생상품에 대한, 특히 상품들과 원재료들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해 일체의 투기적 이용의 금지 등등이다.

다른 한편,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금융은 완전히 다른 금융 모형이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답,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선택한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주된 문제는 아니라 해도 하나의 문제인 것으로부터 금융은 해결책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전환되어야 한다.

무역

무역은 수천년 간 근본적인 인간 활동이었다. 상인들의 여행과 교역로는 여러 경제들의 발달 그리고 문화 교류와 민족들의 역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현재 지배적인 체제는 이른바 “자유 무역”을 촉진하는데, 이는 지구 전체의 재화, 용역 및 자본의 순환에 대한 일체의 장벽이나 제한들을 제거하는 것을 용납한다. 이는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모든 규제 그리고 환경 입법을 포함하는데, 이는 이것들이 무역할 할 자유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지금 미국과 EU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제휴(TTIP) 같은 양자간 협정까지 동일한 목적이 언제나 우세했다: 이는 단일한 세계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고, 대기업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들은 기성품으로 마련된 천편일률적 접근법이다. “자유”란 초국적 기업들을 위한 어떠한 인간이나 자연의 활동으로부터도 이윤을 추출할 자유를 의미한다.

현재의 시야는 정부들의 목표가 그들의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사들을 위하여 자본을 끌어들이고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인, 바닥을 향한 경주(競走)를 초래한다. 일꾼들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일, 흙과 환경에 대한 착취, 조세 도피처의 광범위한 이용 그 어느 것도 생산비용을 줄이고, 지구 전체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게다가 "비용"은 단지 노동과 원재료만 언급한다. 재화들의 국제적 운송에 관련된 영향에서 비롯하여 자연에 대한 영향은 고려될 필요가 없는 "외부효과"들이다. 경제적 관점에서조차 그러한 고삐풀린 경쟁은 아주 소수의 회사들이 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과점체들의 형성을 초래한다.

그러한 조건들에서 국제 경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의 헤비급 참피온과 초등학교 어린이와의 권투시합이 공정한가? 어떠한 조건에서든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너무나도 자주 국제 무역에서 그러한 규칙들은 사실상 그로부터 혜택을 보는 바로 그 회사들에 의해 작성된다.

이 과점체가 식량 사슬을 지배하며, 거기서 수백만의 생산자들과 수백만의 소비자들 앞에서 아주 소수의 초대형 기업들이 국제적 공급선을 통제하고 가격과, 리듬과 생산을 부과한다. 가격에 관한 현행 메카니즘에는 투명성의 완전한 결여가 있고, 흙 위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자들과 식량 가격과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 간에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

그러한 옹호될 수 없는 접근법은 어떠한 활동에라도 해당되며, 특히 흙에 관련된 활동들에 해당된다. 농업에서 우리는 생산과 소비의 표준화 과정, 씨앗들과 생명체들에 특허를 설정하려는 시도, 흙마저 시장과 이윤의 논리에 따라서 사고 팔 자산으로 전락되는 토지 장악을 목격한다.

새로운 순환경제는 무역활동들을 위한 완전히 다른 모형에 의거한다.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필요에 의해 명해지는 규칙을 가지는 순환경제인 것이다. 그것은 지방의 생산을 촉진하고 운송을 줄인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 각각이 그 자신의 규칙들과 특성들을 가진 상이한 여러 시장들을 필요로 한다. 지방 시장에 기초를 두는 "0 킬로미터"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역 수준 등등으로 동심원들의 체계가 필요한 것

이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국제적 규모에서의 무역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나 지구 전체적 무역을 다른 전망 안에 둔다. 그것은 무역을 최강자를 위한 최대의 이윤과 맞물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청구권 협정들이라기보다 종 다양성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윤리적 투자가 이미 증명해 오고 있듯이 근본적으로 다른 금융 모형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수십년간 공정무역(Fiar Trade) 운동은 현행의 지배적 메카니즘들에 대한 대안이 되어 왔다.
협력이 경쟁을 대체하며, 금융적 경제적 측면들이 환경 문제들, 연대성, 그리고 지속적 관계들의 창출에 부합하도록 하는 지방 공동체들의 발달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가 된다. 경제적이고 금융적인 측면들이 고려될 유일한 인자들인 환원주의적 접근법은 자연적, 환경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인자들이 무역의 본질과 역할을 고려할 때 중심 무대로 복귀하는 전일론적 체계로 대체되어 왔다.

법규

금융 및 무역과 관련하여 흙과 농업에 관한 법률들과 규칙들은 아주 적은 수의 초대형 선수(選手)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다. 이것들은 지방의 농부들에게 방해를 놓는 유전자변형유기체(GMO)를 조장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처벌하는 가운데 씨앗들에 대한 특허권을 촉진하는 법률 등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불공정한 규범들과 국제 협약들에 맞서서 일어나는 투쟁들과 항의들의 정당성 심지어 그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세계화는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낳았다. 나라들 간에, 그리고 나라들 안에서 증대하는 불평등에 대한 중독 가운데 단일한 경제적이고 금융적인 체제의 어두운 측면은 범죄 경제로서 이는 국경 없는 인신매매, 마약, 무기 거래 같은 불법 무역에 의해 연료를 제공받고, 부양된다. 범죄 활동들과 동시에 조직 범죄는 사업 체계 안에 점점 커 가는 여과 용량을 발달시켜 왔는데, 이것을 불법 활동들에서 나온 돈을 세탁하는 특권화된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기업가적” 소명의식은 현재의 심각하고 만연한 경제 위기에서 더욱 강하다. 거대한 금융 재원을 처분 가능한 것으로 보유한 덕택에 마피아는 금융의 원칙들과 규칙들을 따른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주로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금융 재원이 희소한 모든 나라들과 영토들에서 범죄 경제는 돈을 세탁하기 위해 그러나 또한 전략적 업종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사업체들과 법률 회사들에 신용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흙에 기초를 두는 활동들은 범죄에 의해 많이 추적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애그로마피아를 말하게 되는 이유다: 농업 생산, 식량 산물의 가공, 유통 및 위조, 건설과 흙의 이전, 폐기물 관리,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흙은 범죄 조직들의 약탈적 활동들에 종속된다. 시민 사회 조직들은 용기를 가지고 대응하여 마피아로부터 몰수 당한 자산들의 경제적 회복과 고용, 부패에 대한 항의 제기와 투쟁, 고리대금에 반대하는 활동, 민주적 법제도를 위한 교육에서처럼 시민적 투쟁 행동들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목표들을 진척시키기 위해 사회 조직들은 공공 행정, 국가 기관, 사법부 및 경찰과 협력한다.

모범 실무: 이탈리아에서 리베라 테라(Libera Terra)는 리베라 협회에 의하여 출범된 프로젝트로서 마피아에 의해 몰수된 토지를 관리하면서 유기농 산물을 생산하고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창출하는 자유로운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디오 삐쪼(Addio Pizzo)는 생산과 무역에 범죄적 조직들이 미치는 폐해에 반발하는 무역업자들과 소비자들로 이루어진다. 유사한 것으로서 마피아에 맞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들의 공공 보도(Avviso Pubblico)는 좋은 행정관이 이익분쟁, 정실주의, 부당한 압력,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금융적 이해집단들, 정치적 이해관계들의 재원조달, 수사의 경우 사법 당국들과의 완전한 협력, 심각한 범죄들(예를 들어 마피아와 부패)에 대한 기소의 경우에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나 의무를 면제해 줄 의무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들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탈리아 헌법 제54조와 97조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 규율, 명예의 원칙들을 어떻게 촉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는 프로토콜이다.

일을 재 정의하기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창조적 기회

토지의 원기회복과 의미 있는 일의 원기회복과 창조,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의 옹호, 생계와 일의 보장에 대한 권리는 새로운 순환경제에 그 공통의 뿌리를 둔다.

인류는, 특히 남반구의 농민들 그리고 전세계에 걸친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일의 맥락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생계 불안정자들(the precarious)의 새로운 계급이 창설되고 있다. 창조적인 일은 의미감, 성취감 및 안녕감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태어난 인간의 생득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불안정이나 착취의 조건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전혀 일을 가지지 못한다.

실업 위기는 착취적, 추출적 경제에 의해 발생된 위기의 중요한 측면이다.
현재 지배적인 일의 모델은 착취에 기초를 둔다: 흙과 천연의 재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착취인데, 이는 농촌 사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명백해진다.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뿌리가 뽑히고 있다.

이 거대한 뿌리 뽑기는 추출적 패러다임의 거짓된 두 가지 가정(假定)에 의해 추동된다. 첫 번째의 거짓 가정은 농민들과 소농들이 비생산적이며 산업적인 초대형 농장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AASTD, UNCTAD, UNEP 그리고 FAO를 포함한 국제연합의 수많은 보고서들은 소농들이 더 많이 생산하며, 인간 식량 안보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거짓 가정은 자원이 금융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 누구나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다. 토지가 교역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해 온 것과 똑같이 일은 노동으로 전락해 왔다. 그리고 노동은 상품으로 전락해 왔다. 이 접근법은 생계의 침식(浸蝕), 늘어나는 생계 불안정, 그리고 줄어드는 노동자 권리, 특히 여성과 청년의 권리의 축소를 직접 초래한다. 현행 모형은 숙련의 훈련과 학습 그리고 숙련과 지식을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저해한다. 그것은 인민의 자결권에 역행하며, 더구나 사회를 세우지 않고 생존을 위해 서로가 경쟁하는 사람들의 집합만을 만든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히는 흙의 선언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흡수를 당해 온 경제는 좀 되는 대로 그리고 조금은 큰 비용을 초래하면서 사람들을 희소성의 법칙들에 지배를 받는 교체 가능한 인구의 조각들로 전환시킨다.” 고 성찰한다.
새로운 경제는 창조적인 일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초를 둔다. 토지를 복원하고, 식량을 길러내고 새로운 경제들을 창조하는, 토지를 가지고서 하는 창조적인 일이 중심이다.

모범 실무: 최선의 실무의 몇 가지 예들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일과 창조적 기회들을 제공하는 고래(古來)의 숙련들의 복원, 도시 농업과 새로운 유기농업 생산, 삼림조성, 예술과 공예, 지방식(地方食), 약초 작업(음식, 화장품, 약품), 에너지 자기 생산, 토지 돌봄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다.

생산성의 거짓 모형은 사람들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사람들을 일에서 쫓아내는 것을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했다. 새로운 순환경제에서 노동은 투입물이 아니며, 창조적인 일은 생산과정의 산출물이다. 유사한 것으로서, 구(舊) 추출 경제에서 토지는 투입물이었다. 그것은 착취되었고, 저열화되었고, 오염되었고 황폐화되었다. 새로운 순환경제에서 토지 복원과 토양 비옥성의 원기회복(回春)은 생산적인 일의 결과들이다. 일은 닫힌 생산적 순환주기들에 기초를 둔다: 순환경제, 자급자족을 향한 움직임, 흙, 종다양성, 물의 원기회복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일을 인정하며 씨뿌리기부터 수확까지 판매까지의 전체 사슬을 포괄하면서 파편화되지 않은 통합된 일에 기초를 둔다. 중개자들 없이 (또는 거의 없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는 씨앗, 양모, 목재, 천연비료, 에너지 등과 모든 인간적 필요들을 향해 글로벌 기업의 통제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증대를 초래한다. 이는 돌봄의 경제, 흙의 돌봄, 공동체의 돌봄을 포함한다.

이는 단일 경영이건, 집단 경영이건, 기초자치공동체 경영이건, 협동적 경영이건 가족 경영이건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조직, 자율 관리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모형은 낮은 수준의 금융 투자와 금융 투자에 대한 작은 수익에 기초를 둘 것이지만, 시장 종속성과 부과된 희소성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능력과 지식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에 기초를 둘 것이다. 그것은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녕과 안보의 측면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올 것

이다.

흙으로 돌아감은 부양과 훈련의 제공을 통해서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토지와 영토들의 회복은 젊은이들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일과 기업가 정신을 제공해 준다. 청년층은 새로운 농업과 새로운 경제를 형성하는 데서 주요한 주역(主役)들일 수 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원예와 영농 공동체들을 이루고 자신들의 미래를 흙과 토지를 가지고서 일하면서 구축하고자 선택하는 젊은이들의 운동이 커가는 것을 보고 있다.

모범실무: 농뉴욕의 청년 농부들, 협력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풀뿌리 조직인 그린혼(녹색뿔)은 그 목표가 청년 농부들의 신세대를 모집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촌 경제들의 재구축, 소기업 기업가 정신 그리고 팀웍에 열성을 가진다.

도시들

오늘날 적어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화 과정과 이어지는 도시 팽창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공업 모델은 통제 안 된 도시화, 과잉건축, 도시 부패 그리고 금융 투기와 손을 잡고서 나간다. 으는 농촌 인구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슬럼가로 몰아내고, 시민들을 (고급주택화 된) 구도회지에서 몰아내어 교외지역으로 밀어넣고 있다. 농공업처럼 중앙 집중화되는 대도시권은 거대한 에너지 침적처로서 점점 더 1인당 토지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 생활, 삶과 일의 지배적 방식으로서 수립된 대도시 모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적절한 또는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도시와 산천 간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은 문화적인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면에서 재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어떤 나라들 -독일, 영국 그리고 지금은 이탈리아도 토스카나의 예를 가지고서 - 비옥한 토지의 새로운 소비에 제한을 두어 왔다.

순환 경제 안에 도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은 문화의 측면에서 실무적 숙련에서부터 언어적 숙련까지, 조형 자원에서부터 지식의 보전과 생산까

지 등등에서 그리고 그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고 더 폭넓은 농업적,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에너지 측면에서 자원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영농과 식량의 자율성은 역내 구조에서 그리고 도시의 생태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또한 밀라노, 팜플로나, 바르셀로나의 예를 따라서 농업공원들의 형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도시를 위한 식량 예산을 수립하고, 그 식량 기초를 생태 지역의 영농 생산에 연결하는 것은 그 첫걸음을 나타낸다.

도시에 의한 산천의 자본주의적 착취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와 산천 간에 협약을 권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민들과 농부들 간의 제휴는 직접 판매 그리고 도시 전역에서의 영농 기술의 전파를 뜻하며, 건물은 문명의 행위라는 관념을 물리치도록 건축이 비옥한 토지에 가해질 때에는 그것을 야만의 행위로 제시하는 일종의 "흙으로의 교육"이란 것이 그 제1차적 결과로서 나타난다. 도시 극성의 그러한 변화는 산천의 인구재증식 그리고 농촌 주거지의 재형성과 짝을 이룬다.

행동 요청: 맹목적이고 게걸스러운 도시화에 의해 말소된 공한지(하천, 공원, 삼림 등)에 보상해 주기 위한 집중 행동이 오염된 산업부지(공장, 이용이 안되는 철도 부지 등)를 원예지, 공원 그리고 역내 황무지를 가지고서 재생하는 일과 함께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 이는 제도적 의지와 지적 구상적 기획과 도시 근교확장개발에서의 돌려진 수로, 옛길, 농경기하구조들같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모습들의 복원을 요한다.

농촌 서식지들에 존엄성을 돌려주고, 산천을 탈도시화하는 것은 농촌 인구의 서비스와 장치들에 대한, 도시적 혜택들(물,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동시에 독립적 문화들의 형성을 증진할 것을 요한다.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촌락 공동체의 간디 모델은 많은 이들이 대도시권을 재설계하는 도시근교확장개발에 대한 해답으로 지적하는 "도시들 중의 도시"라는 다중심적 모형과 조합된다.

소규모에서 중규모 중심지들의 연맹체는 참으로 현실적으로 거대한 대도시권역의 밀려난 사람들이 찾아간 곳들에 의해 발생된 소비를 줄인다. 정치적 중심기관들이 가까움은 시민 참여를 증진한다. 도시 관문(關門)에 제한을 둠

은 도시와 산천 간의 스며듦(osmosis)을 촉진한다. 여러 영토들에 복합적 중심지들을 할당하는 것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성채” 반대편에 생겨난 열악회된 도시 구조를 되살려 주며, 광범위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민주적인 형태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재분배한다.
흙의 개념은 자결권의 기초로서, 장소와 경험들, 미래의 사업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저장소에 뿌리를 둔 기억으로서의 “지방” 개념에 엄격하게 연결된다.

소비자들에서 시민들로

소비자들로부터 의식을 가진 지구 주민으로, 고객으로부터 “흙의 시민들”로의 진화는 경제에서 단선형으로부터 순환형으로서의 패러다임 이동에 내재한다. 그러한 이행은 생산, 일 그리고 생활양식의 분야들에서 소비와 폐기의 단작문화를 내다버릴 것을 요한다. 오늘날 참으로 마켓팅, 포장, 유동을 하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은 선진화된 소비주의를 초래해 왔으며, 이는 슈퍼마켓, 쇼핑몰, 미디어 선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에게 무한한 선택지들과 약속들을 나열해 주면서 이는 만족스러운 안녕을 보장해 줄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비자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스런 대출 그리고 보통은 더 큰 빈곤화를 초래하는 담보대출에 의존한다.
소비자 산물의 표준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지배에 의해 부과된 조건들은 사람들에게서 역사상 다른 시대에는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었던 직접적 관계성을 빼앗으면서 인간 의식을 무디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들은 구매자들에게서 건강, 언어, 식문화, 행동 등에 대한 주권을 빼앗는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음식과 천연 재료의 미덕과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을 빼앗는다.
전통적 모델들에 대한 현재의 부정, 기계장치의 늘어나는 복잡성, 물건들의 계획된 진부화, 석유화학적 합성으로 나오는 재료들의 병적인 확산, 이 모두는 숙련의 발달, 기억력과 노하우의 사용을 방해한다. 과학기술 보형술은 도그마이며, 그 자체로 소비주의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순환주기들의 지방 차원의 폐쇄를 마련해 주는 문명은 흙의 순환주기적 비옥성에서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그것에는 또한 에너지, 물, 작물재배 순환주기들의 폐쇄도 보장받아야 한다. 소비 장소에 인접한 지방의, 재생가능한, 소규모의, 광범위한 에너지 생산은 예를 들어서 비옥한 토양 수천 평방 마일을 수몰시켜 그곳에서 여러 세대를 살아온 농부들을 난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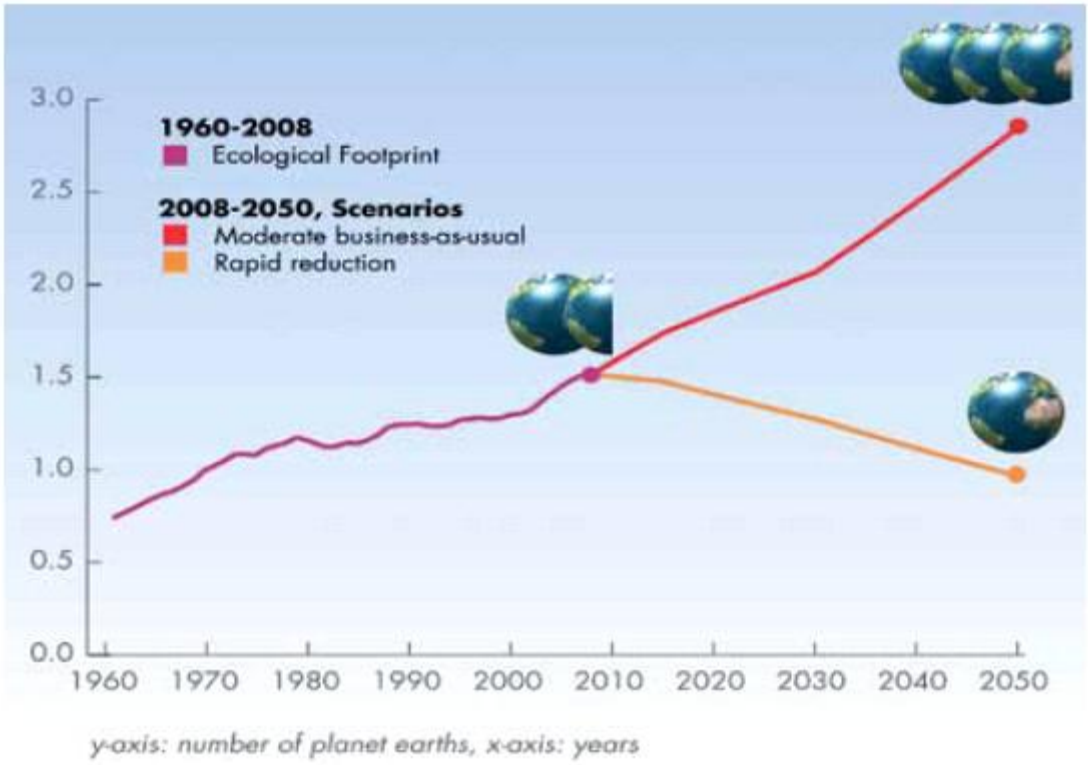
한 댐들에 의해, 태양발전시설로서 경작지를 도적질하는 시설에 의해, 생태계들과 사회적 균형들을 파괴하는 광물 채굴에 의해 야기된 손해를 줄여 줄 수 있다. 농업은 삶의 아주 많은 측면들을 담고 있는 산업으로서 지구별의 소비자들로부터 시민들에게로 가는 시민적 진보에 중심이 된다.
순환경제를 위하여 흙을 회복하는 일이 개인들의 도시 생활 그리고 그들의 필요물을 공급하는 일 모두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할지를 새로운 시야가 보여준다. 지구 전체적 소비의 모델로부터 비폭력적 자가 생산으로의 도약은 필요하고도 시급하다. 사전예방(precautionary)의 원칙, 일꾼들의 보호, 공정한 보수, 자연적 산물과 가공, 짧은 공급 사슬, 정보와 투명성은 이런 점에서 필수적이다. 생산방법, 원재료의 조달, 제품 성분에 관한 라벨 정보의 투명성, 비용의 분배는 식품 품질, 구매자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보장해 주며 아동 노동을 방지한다.

모범 실무: 이탈리아의 'GAS'(Gruppi di Acquisto Solidale, 연대적 조달 그룹), 프랑스의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농민 농업 유지를 위한 협회)같은 협회들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한데 연결하여 상호 의식과 지원을 증진한다. 지방에서 실시되는 참여적 보장 체계(PGS)는 포괄적인 품질 체계를 보장해 준다: 생산자들은 신뢰, 지식의 교환에 기초를 두고서 고객들의 적극적 참여에 따라 행동한다. 새로운 책임감은 도시 텃밭에서 시민들이 일을 하는 데서 나온다. 지방에서 생산된 식량의 직접 판매와 이웃 시장에서의 수공예품의 직접 판매는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도시들이 그들의 의제에 농업을 더 많이 포함시킬수록, 그 도시들은 식량의 낭비적 운송을 더욱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생태지역은 거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잠재성을 부여받은 영토단위로서 이런 점에서 출발점이다.

가상적 토지 장악과 토지 발자국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은 토지에서 오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산물은 "토지 발자국"을 가진다. 재화들이 나라 사이에 교역될 때 "가상적 토지"의 소비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랄트 폰 비츠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EU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 바깥에서 거의 3500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요한다. 그 토지 발자국은 인간 6억4천만 헥타르로 추산되며 이는 그 28개 회원국 크기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

다. EU 시민 각 사람은 연간 1.3헥타르의 토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평균적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의 여섯 배다.[57] 무의식적인 소비는 이처럼 "가상적 토지 장악"에 기여한다. 이는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식 있는 시민의 입장으로 옮겨가야 할 이유다.



Source: Global Footprint Network

57) Global Soil Week, Soil Atlas, 2015.

제5부

새로운 민주주의

인류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 중에는 시민들이 우리의 미래와 지구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배적 정치 제제와 착취적 경제 모형을 바꿀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은 점점 더 99%, 지구 그리고 지구의 생물종들을 짓밟고 있는 1%의 경제적 피라밋을 반영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기업 이익 대표의 수단이 되어 왔으며, 그 주된 목표는 지구의 모든 자원과 모든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통제권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공정한 경제와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이 새로운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간다. 그것은 모든 생명 - 식물, 동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물체들의 민주주의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생명망에 의존하며, 우리의 권리들과 자유들은 지구 그리고 비인(非人) 생물종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에서 흘러나온다.

참여는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중심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계급, 성별, 종교, 인종에 상관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다. 그것은 일상적 참여에 기초를 두며, 대의제를 넘어서 가고 단순히 4, 5년에 한 차례 투표를 하는 것을 기초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토지와 자연을 돌봄에 그리고 민주주의 침식의 시대에 지구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과 연대성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에의 참여와 그런 공동체들의 계발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중앙집중화된 권위를 넘어서는 권력의 분산과 순환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행동들을 의식하고 그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면서 그것들에 책임을 진다.

모범 실무: 인민 운동인 엑타 파리샤드(Ekta Parishad)는 다음의 목표들을 가진 새로운 구상인 자이 자가트(Jai Jagat) 2020을 조직하고 있다: 청년 비폭력 행동 훈련, 향후 수년간 나라의 660개 모든 구역에서 각 구역에서 최소한

200명의 청년이 참가하는 캠프를 열어서 10만 명 넘는 청년 남녀에게 다가가서 가능한 많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민감하게 만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 캠프들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쟁점들을 토론하고 이해하고 토지와 자원을 빈자들에게서 빼앗고 소외시키는 데 비폭력적으로 도전을 가하는 행동계획들을 작성할 수 있는 지점들 - 다양한 다른 대륙과 나라들에 있는 시민사회 그룹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쉽이며, 인도로 와서 주변화된 집단들 중에서 이런 일하는 방식에서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자이자카트 2020의 전체 운동은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선거에 의한 대의제에 기초를 두는 구식 민주주의는 인민으로부터의 권력의 단선적 추출인 것이다. 그것은 점점 더 인민이 자신들의 토지, 자신들의 생활,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자유를 토지 장악, 일의 파괴, 우리의 생명 부양 시스템과 민주적 권리들의 파괴에 직면하여 지킬 힘이 없게 방치하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맥락에서 대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기업 이익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국가는 점점 더 기업체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세기의 민주주의 운동들이 제도화한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이와 함께 인민의 건강권과 교육권, 일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해체하는 데 민영화, 성장, 그리고 자유무역의 어휘사전이 사용된다. 주권 국가의 기업 국가로의 전환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꺼뜨리는 것이다.

"자유"는 오늘날 크게 논란이 되는 용어가 되어 왔다. 시민들은 인민의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할 자유, 필수 자원인 씨앗, 식량, 물,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 기업들은 자유를 기업활동의 세계화(corporate globalization)로 알려진 "자유무역"으로 정의한다. "자유무역" 규칙들은 기업들의 우리의 공유재산-토지, 물, 그리고 씨앗을 상품화하고 사유할 자유를 확장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구 그리고 지구 공동체, 인민의 문화들과 민주주의들의 자유를 파괴한다.

1992년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에서 국제 공동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들에 서명했다 - 생물 종다양성 협정(CBD), 그리

고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정, 기후조약 같은 것들이다. UN 사막화 방지 협정, 그리고 잔류성유기인산에 관한 스톡홀름 협정은 여러 정부들에게 환경적 피해,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들을 규제할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
꼭 3년이 지나, 세계무역기구의 창설로 국민주권도 국민의 민주주의도 모두 기업의 권리들을 위해 환경과 인민의 권리들에 높은 비용을 초래하면서 탈규제화를 통해 해체되기 시작했다.

모범 실무: 잔 사티야그하라 2012 (진실에의 치열함)라는 비폭력 도보 행진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에 기초를 두고서 2012년 10월 동안 괄리오르와 델리 사이의 350km의 거리에 펼쳐졌다. 목표는 포괄적 전국 토지개혁 법안과 가난한, 토지가 없고, 집이 없고 주변화된 공동체들에 토지와 생계유지를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 기구들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자연이 전에 없던 규모와 속도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인류가 최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짓밟히고 있는 동안 자연과 인간됨은 허구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WTO는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의 권리들 위에 군림할 기업의 권리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는 기업들이 "인격"을 지님을 - 주장할 정치적 과정을 출범시켰으며 그래서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가족들을 부영하는 - 실재의 사람들이 자기 권리들을 상실한다. 이것도 "투자자 권리"에 기초를 둔 TTIP와 TPP 같은 "자유무역" 조약들의 핵심에 있다. 정부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국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할 때 투자자들로서의 기업들은 권리들을 가진 "인간들"이 되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투자의 가치나 잠재적 이윤을 축소한다고 하는 법률들과 정책들에 대해 화폐적 보상을 청구하면서 비밀 민사 법정에서 주권국가들에 제소할 수 있다.
세계화와 금융 위기로 긴축정책이 여러 사회들에 부과되며, 이어서 근본적 인권들도 침식을 받는다. 이런 일은 구조조정과 무역 자유화란 이름으로 남반구 나라들 전체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긴축이란 이름으로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긴축과 성장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문화의 자유들의 해체, 생명망과 우리 인류의 조건들을 짜왔던 모든 생태적 진

화와 다원적 역사들의 무효화와 흩어짐이다.

자유에 대한 기계론적, 원자론적 개념은 너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의 자유는 끝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다. 이는 배제, 지배 그리고 폭력의 논리를 끌어들인다.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가 시작될 때 시작되며 토지의 자유와 모두의 자유를 포함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인간들을 넘어서 간다. 그것은 일상 생활과 매일의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대의제를 넘어서 간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인민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생존의 절대명령이 되었다.

다양성이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종 다양성처럼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은 흙에서부터 자라난다. 우리의 자아감은 흙과 땅에 뿌리를 두며, 다원적,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옷은 이 아름답고 풍성한 토지 위를 거쳐가며 달라진다. 토지는 모든 신앙들과 문화들을 단합시킨다. 인위적 정체성들은 갈라진다. 근본주의와 극단주의는 배제를 창출한다.

불안정의 경제학이 커가고 협소한 정체성들의 정치가 그것을 먹고 살면서, 정체성 자체가 긍정적으로 경험되고 공유된 장소 정체성에서부터 증오와 배제의 부정적인 인위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 변이를 일으킨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하나의 지배적 문화에 기초를 두는 지배할 자유가 아니라 여러 문화들의 다원성 안에서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자유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으뜸, 모든 생명의 다양성, 모든 문화들의 다양성 그리고 지방에서 전국으로, 지구 전체로의 모든 수준에서의 참여의 다양성에 기초를 둔다.

분권화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기업 규칙은 권력의 중앙집중화에 기초를 둔다. 기업들에게는 권력이 중앙집중화된 권위로 집중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더 쉽다. 의사결정에

인민이 참여하는 것은 권력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그리고 공동체 과정들과 공동체 권리들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참여는 공동체 내에서 권력을 순환시키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들을 창조한다.

스와라지 (자치)는 간디에 의해 인민과 공동체들에 의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자치와 자기 조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다. 그것은 인민 주권의 최고의 표현이다. 스와라지 그리고 "자치 규칙"(home rule)에 대한 요청이 어디서나 자라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는 지방의 부족 공동체들의 자치 권리들을 인정하기 위해 부족자치법(PESA)과 삼림권리법을 입법화했다. "식물 다양성 보호 및 농부 권리법" 2001이란 이름의 인도 법률은 농부들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가진다. - "농부는 이 법에서 보호받는 종류의 종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농정 산물을 보관, 사용, 파종, 재파종, 교환, 분배 또는 판매할 자격을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자격을 가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에서 자신들을 GMO-free (무 GMO)라고 선언하는 여러 공동체들과 지역들은 기업 권력에 대한 대항권력으로서 행동해 왔다.
2014년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브뤼셀에서 종자 등록을 중앙집중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시도했을 때, 그래서 다양성과 지방 품종들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여러 운동체들과 유럽 의회는 다양성을 보호할 의무 그리고 농부들이 자유로이 수분(受粉)을 한 농부가 배양한 씨앗을 보관, 사용 및 교환할 권리를 유지시켰다.
미국에서 여러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수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無) 수압파쇄(fracking) 구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와이에 있는 여러 공동체는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제조체 살포와 GMO 식재(植栽)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규칙상의 원칙 위에서 스스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의사결정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는 데 기초를 두는 "풀뿌리" 원칙은 분권화된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공동체들과 공유지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공동체들은 공유지를 형성한다. 공유지는 지방 공동체들에 의하여 자치되는 생활 영역들이다. 그것들은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 국가는

잘 해야 지방 공동체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체들이 공유지를 자치할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

인정 법률들과 금지 법률들에는 차이가 있다. 인민 주권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인정하는 법률들이 인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반면, 금지 법률들은 그것을 소멸시킨다.

모범 실무: 1999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나브디냐는 자이브 판차야트라는 모든 생물체에 대한 생물자원수탈과 지적재산권 독점체들에 맞서 싸우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 운동을 출범시켰다. 자이브 판차야트는 전체 민회(gram sabha) 여성, 어린이 그리고 소수자 공동체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의 판차야트는 공동체에게 종 다양성과 그 보존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자를 내어준다. 그렇게 하면서 자이브 판차야트는 선출된 판차야트 집단이 종 다양성에 대해 행동을 취할 패러미터들을 정한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실재화하기, 당신 마을의 모든 사람을 자이브 판차야트로 조직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이브 판차야트가 그 구역의 모든 생물 자원의 보존, 관리,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자이브 판차야트로 회의들/ 의식화 캠페인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당신 구역에서 가용하고 사용이 되는 생물적 부(富)의 다양한 종류들을 토론하는 것, 모든 생물 자원은 공동체 속한다는 것의 공식적 선언을 하는 것, 생물 자원과 지식의 침식을 방지하도록 공동체의 종 다양성 등록부(CBR)를 마련하는 것이다. 몇 사람의 적극적 구성원들은 등록부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책임을 맡는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주권과 자유가 공동체들과 공유지에 고유하다는 것, 우리의 토지, 흙 그리고 종자 주권은 우리의 일하고 창조하고 부양을 제공할 자유라는 것을 뜻한다. 씨앗과 종다양성은 민영화를 통한 시장에 의해서도 중앙집중화된 권위와 그 관료 장치를 통해서도 아닌, 지방의 자치와 자율의 자율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나눌, 궁극적 공유재산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또한 생물 안전 그리고 생물자원약탈 방지에 관한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규제를 통한, 잠재적인 손해로부터의 자유를 내포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정의와 함께 한 자유의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인도에서의 토지 권리를 위한 운동 그리고 2020년에 자이 자가트로서 계획된 토지를 위한 지구 전체적 행진은 스와라지의 개념에 기초를 둔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의 예들이다.

땅과 토지의 권리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흙과 토지를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흙의 안녕이 사회의 부(富)와 안녕을 이룬다. 토지와의 지속불가능하고 폭력적인 관계는 사회에서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자연을 경제 발전을 위한 착취 대상인 자원으로 전락시키고, 채굴적 경제의 비용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인류를 벼랑 끝으로 데려 왔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지구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의존함을 인정한다. 그것은 의식과 감사에 관한 것이다. 인권들은 토지와 지구를 보호할 우리의 의무들에서 흘러나온다.

토지와 지구는 우리가 진흙의 웅장한 갱신과 복원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인류의 잠재성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부록 I

논점 1:
인도의 영국인들은 숲들에 울타리를 쳐서 상업적 개발이용을 위한 국가 독점체들로 전환시켰다. 일단 인도의 토지가 찬탈되자 산물과 토지에 대한 조세를 통한 토지로부터의 수익의 징수는 자민다르/지주들의 도입에 의해 가능케 되었다. 삼림파괴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공유지 울타리 치기의 영국 정책은 나중에는 인도에 있는 식민지들에서 복제되었다. 숲들을 유보된 숲들로 선언하는 1865년의 인도삼림법은 삼림 비옥성 그리고 삼림 산물에 대한 지방민의 권리들의 침식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수익 발생 능력이 없는 토지라는 영국식 황무지 개념으로, 삼림 및 방목지가 정부에 의해 취해졌고 수익 발생을 위해 경작자들에게 돌려졌다.

최초의 인도삼림법은 1865년에 최고 입법 평의회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삼림과 황무지(‘베납’ 또는 측량되지 않은 토지)를 보존된 삼림이라고 공표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이 입법의 도입은 삼림의 ‘과학적 관리’라고 불리는 것의 출범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삼림 그리고 삼림 산물에 대한 지방민의 권리 둘다의 침식을 공식화한 것에 해당했다. 삼림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삼림 보존이란 사실상 울타리 치기였으니 이는 그것이 공유 자원을 상업적 자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단지 사유화에서 중재만을 했다.

논점 2: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경제는 토지 장악에 기초를 둔다. 국제식량정책연구원(IFPRI)은 2009년에 발전도상국의 농경지 1500만에서 2000만 헥타르가 2006년 이래 주인이 바뀌었다고 추산했다. 2013년 1월에 랜드 포탈의 랜드 매트릭스 데이터는 4900만 헥타르의 토지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있었다고 집계했다. 그중에 2600만 헥타르만이 초국적 거래였지만 말이다.
2011년의 세계은행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5700만 헥타르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프리스 & 린버그(Friis & Reenberg, 2012)는 2012년에 아프리카에서만 5100만에서 6300만 헥타르가 거래되었다고 보고했다. 2012년에 발표된 GRAIN 데이터베이스는 3500만 헥타르를 정량화했다. 물론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같은 더 발전된 경제들을

빼면 GRAIN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양은 2500만 헥타르로 줄어들지만 말이다.

논점 3:
인도에서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전쟁은 토지 장악 명령을 통해 선포되었는데, 이 명령은 2013년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 토지 취득에서의 투명성, 재건과 재정착 법을 뒤집어서 우리를 정부에게 부족민들과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전유하여 기업들에게 넘겨줄 통제받지 않는 권리를 부여하는 1894년의 식민법률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 운동은 팔왈부터 델리까지의 행진을 감행했다. 수천명의 농부들이 2015년 2월 24일 잔타르만타르에 모여 토지 명령을 폐지하고 법률에 동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의 조항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논점 4:
이는 상당 정도로 인도의 최상의 다양한 쌀 재배 면적의 일부를 204개의 대규모 산업의 포진지대로 전환하는 정책을 설명해 준다. 이 정책은 2000-2010년간에 인도의 일개 주인 차티스가르 내에서 약 13,000헥타르를 전환케 했다. 차티스가르주 정부는 가해에 모욕을 더하는 격으로 543개 프로젝트를 위해 115개 회사들과 추가의 MOU에 서명했다. 공식 추계에 따르면 이에 더하여 주민이 거주하는 아디바시 삼림지대 약 13,000헥타르가 전환되어 왔다. 이 삼림지대의 97%가 광업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추정치들이 시사해 주는 것은 주 내에서 공중은 채굴된 광물 가치의 단 12%만을 벌어왔다는 것이다.

논점 5:
오늘날 우리가 이 경제특구(SEZ)들을 조성하기 위해 전유되고 있는 토지를 바라볼 때 이ㅜ 경제특구들을 만들기 위해 취득되고 있는 것은 황무지가 아닌 주요한 농업용 토지라는 것이 명확하다. 정치분석가 프라풀 비드와이(Praful Bidwai, 2006)가 지적한 것처럼 “인도의 주정부들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통용되는 시장 가격에 한참 미달하는 가격에 농경지를 조달해서 이를 암바니 형제들, 한국의 철강 재벌 POSCO, 타타스, 마힌드라스, 유니텍 그리고 사하라 같은 대기업 그룹들을 포함한 프로모터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The Great Indian Land Grab)
2007년 3월에 14명의 사람들이 서벵갈의 난디그람에서 인도네시아 회사에 의해 주창된 석유화학 경제특구를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내놓기를 거절했다고 하여 경찰과 폭력조직에 의해 살해되고 더 많은 이들이 강간과 상해를

당했다.(Levien, 2012)

논점 6:

두 가지 예는 버몬트와 마우이다. 합법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GMO 표시부착법을 통과시킨 버몬트는 기업들의 복합체에 의해 법인격이라는 거짓 전제, 그리고 기업의 "자유 언론"으로서의 돈의 영향력에 기초를 두고 제소를 당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식량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들을 유린한다. 하와이의 마우이군이 투표를 하여 무(無) GMO 군(郡)이 되었을 때, 다우와 몬산토는 (기업들의 권력이 아닌 인민의 의지에 의거한) 민주적 절차를 뒤엎어서 그 군을 제소했다. 후쿠시마 재앙 후에 독일 시민들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 투표했으며, 한 스웨덴 기업 바텐팔(Vattenfall)은 독일에 3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업 법리는 인권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면 뒤집힐 필요가 있다.

부록 Ⅱ

흙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

2015년은 흙의 해다. 이는 또한 2000년에 출범한 새천년 발전목표의 기한만료 그리고 이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로 대체하는 해이기도 하다.
흙의 돌봄은 지속가능성의 기초이며, 모든 SDG 목표에 기여할 잠재성을 가진다.
고대 인도의 베다가 4000여년 전에 인정한 것처럼, "이 한줌 흙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 흙을 보살피라. 그러면 흙은 우리의 식량, 연료, 쉴곳을 키워낼 것이고 우리를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쌀 것이다. 흙을 남용하라. 그러면 흙은 무너지고 죽으면서 인류도 함께 데려갈 것이다."

1) 어디에서나 모든 형태에서 빈곤을 종식시킨다.

빈곤에는 두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생태적이고 물질적인 것, 두 번째는 금융적인 것이다. 지속불가능한 농업 및 토지 사용과 연결되는 흙과 토지의 저열화는 생계 그리고 식량, 사료작물, 연료, 물과 주거지의 기초적 필요물의 공급을 저해하여 생태적 물질적 빈곤에 기여한다. 값비싼 종자와 화학물질의 구매에 기반을 두는 외생적 투입 농업은 농부들을 채무와 빈곤의 덫에 걸리게 한다. 땅에서 밀려난 농부들은 생계의 확보도 없이 도시 빈민군에 가담한다. 흙의 원기회복과 토지의 복원에 기초를 두는 생태적 농업은 빈곤의 악순환을 뒤집는다. 그것은 인도의 경험에 기초를 두면 농부의 소득을 열 배 늘릴 잠재성을 가진다.("Wealth per Acre" V. Shiva)

2)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한다.

산업적 농업의 지배적 모형은 두 수준에서 기아와 영양실조를 창출한다. 첫째로 농부들이 비싼 투입물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농부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가운데 부(負)의 경제를 창출한다. 식량의 생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굶주린다. 그런 부(負)의 경제는 왜 세계의 굶는 자 절반이 농부들인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로 산업적 농업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식량이 아니라 영양상으로 공허한 상품들을 재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90%의 옥수수와 콩이 바이오연료와 동물사료로 간다. 그리고 화학적 단작재배들은 생물 종이 다양한 집약적 생태적 농장들보다 에이커당 영양분을 덜

생산한다. 나브다니야 보고서 “에이커당 건강”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종다양성 집약화를 통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두 배를 생산할 수 있다. 종다양성 집약화는 또한 유전자 조작된 골든 라이스(황금쌀)이나 GMO 바나나의 거짓 약속들보다 철분과 비타민 A 의 영양결핍 같은 영양결핍에 대처하는 데서 수천 %나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3) 모든 연령의 모두를 위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모두의 안녕을 촉진한다.

건강은 흙의 건강에서부터 식물 그리고 인간들을 포함한 동물의 건강까지의 연속체다. 건강은 또한 일생에 걸친 연속체다. 건강하고 영양 좋은 식사를 거절당한 어린이들은 일생 시종 취약한 상태로 머문다. 흙의 건강은 반환,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줌의 법칙에 달려 있다. 건강한 흙은 영양분이 풍부하다. 건강한 흙에서 자란 식물은 화학물질 투입으로 자란 식물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진다. 글리포세이트(라운드업) 같은 살충제와 제초제 등 우리 식품 속의 독극물은 신경질환과 암의 유행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도 화학물질 투입에서 자유로운 생태적 농업이 모두를 위해 건강과 안녕에 기여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품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 학습기회를 촉진한다.

오늘날 교육은 배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로 그것이 권리로 인정되는 대신에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학습이 생명 대신 시장에 연결되어서 제한된 소수의 숙련들만이 계발되고 있다. 교육에서의 이 배제는 2008년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일자리 없는 성장 이후에 실업 증가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해진다. 교육은 의미 있는 일과 안녕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 생태적 문자해독능력, 건강 문자해독능력, 영양적 문자해독능력, 흙에 관한 문자해독능력, 식량 재배상의 문자해독능력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활숙련들이다. 인도의 데라둔에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과 지구 공민권을 위한 지구 교육대학 같은 학습 센터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센터들은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들 그리고 창조적 생계상의 지식과 평생 숙련들을 특히 청년층과 여성에게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5)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 권능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농부가 여성이라는 것이 자주 잊어진다. 그리고 여성 농부들은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이는 또

한 폭력, 굶주림 그리고 영양실조의 최악의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여성을 농업과 영양공급의 중심에 되돌려 놓는 것은 성평등과 여성 권능부여에 대한 단일한 가장 큰 기여일 수 있다.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성들이 인도 전역에서 "마힐라 안나 스와라지"를 위한 나브다니야에 모여서 씨앗 보전자이며 식량 생산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기렸다, 그들은 흙, 자신들의 씨앗, 자신들의 식량주권, 지식 주권을 보호하기로 다짐했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흙, 농업 그리고 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물의 90%는 지속불가능한 화학적 농업을 위한 집약적 관개를 위해 사용되어 어디서나 물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물질과 공장식 농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물을 오염시킨다. 질소산화물 유출은 세계 전역의 수체(水體)들에 '죽은 구역'을 만들고 있다.

생태적 농업은 농업에서 물 수요를 줄여 주며, 그 유기물 성분을 늘려서 흙의 물 담지 용량을 늘려준다. 토양유기물(SOM)의 0.5% 증가는 헥타르당 흙의 수분을 80,000리터 늘린다.

5% 증가는 헥타르당 80만 리터를 더해 줄 수 있다.

7) 모두를 위한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한 그리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우리는 화석연료로부터 분권화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 이는 식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투입물로서 10배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집약적 산업적 농업으로부터의 이행을 수반한다. 산업적 바이오연료가 토지와 식용 곡물을 굶주린 자들로부터 자동차들로 돌리고 있는 반면에, 분권화된 생태적 영농은 지방 수준에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늘려 농장 폐기물을 비료와 에너지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가난한 여성들에 지우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8) 지속적인, 포용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품위 있는 일을 촉진한다.

SDG는 환경, 건강, 사회 비용을 외부화하는 협소한 성장 척도들로부터 옮겨가서 "성장"의 외부성들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그 목표들은 꼭 GDP와 GNP 같은 성장 척도만이 아니라 안녕(well-being)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류를 위한 이 진화상의 분수령에서 우리는 또한 상품이면서 투입물로 간

주되는 “노동”을 생산적 고용과 품위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토지와 생계에 관한 선언, Terra Viva에서 지적된 것처럼 토지, 흙, 지구를 돌보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지속가능한 경제들의 설계에서 산출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지배적인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생산성 계산은 노동을 투입물로 정의하며, 생산성 증대와 성장을 사람들을 화석연료와 에너지 노예들로 대체하면서 노동 투입을 줄이는 것에 기초하여 정의한다. 실업의 위기와 천연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의 위기는 지속불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공통의 뿌리를 둔다. 자원의 보존과 의미 있는 일의 창조는 SDG 목표들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대공황과 황진이 정점에 달하던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토양 보전과 토지 복원을 통하여 일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보전단을 출범시켰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국제 공동체는 SDG목표들을 통해 청년 실업 형태를 띠는 생태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9)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을 조장한다.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붕괴의 시대에 회복력을 가진 인프라는 흙과 생태계들의 회복력, 공동체들의 회복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0) 나라 안의 그리고 나라들 간의 불평등을 줄인다.
지난 20년 간의 금융적인 그리고 무역상의 규제완화는 나라 안에서의 그리고 나라들 간의 거래한 불평등 간극을 창출해 왔다. 부유층 1%가 인류 절반이 가지는 만큼의 부(富)를 소유한다. 85명의 개인들이 35억 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부를 통제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SDG목표들이 고되게 일하는 빈자들을 벌하고 일하지 않는 부자들에 보상해 주는 대신 실재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재의 사람들에 의한 실물의 생산에 기초를 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은 이런 이전의 주된 후보가 된다.
현재 식량과 농업의 지속 불가능한 산업 체계는 더 생산적인 농가를 파괴하고 질병과 실업을 늘리고 있는 4천억 달러의 보조금에 의해 떠받쳐진다.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들 간에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흙, 종다양성, 그리고 물의 보전에 기여하고 건강을 제공하는 실질적 식량을 생산하는 실재의 농부들의 일을 인정하고 이에 보상을 해 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11) 도시들과 인간의 거주지들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한다.

도시와 산천은 한 연속체의 부분들이다. 추출적이고 착취적인 경제는 도시들이 시골로부터 자원과 부를 추출하고 농촌 지대들을 헐벗게 방치함으로써 크기가 커지고 번영할 수 있게 해 주어 왔다. 대규모 이주는 배제를 낳고, 불안정과 취약성을 촉진한다. SDG목표는 상호성과 호혜성을 통하여 도시와 시골 간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대사체계로서의 식량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들의 새로운 설계의 기초일 수 있다. 도시들은 식량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우리가 수계(watersheds)를 가지는 것처럼, 도시 곳곳에 "식량창고"(Foodsheds)를 두어야 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유형들을 보장한다.

산업적 식량과 농업은 가장 커다란 생태 발자국을 가진다. 75%의 자원이 단 30%의 식량을 제공하는 모델에 의하여 파괴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유형들은 생태적 농업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양호한 식량을 가질 것이다. 흙, 종다양성, 물은 원기가 회복될 것이고, 기후는 복구될 것이다.

13) 기후변화와 그 파급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한다.(UNFCCC 포럼에 의해 만들어진 협정들에 유의하면서)

산업적인 글로벌화된 농업과 식량생산 모형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40%에 책임이 있다. ("Soil not Oil" V. Shiva) 이 온실가스들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질소 합성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이산화탄소보다 300%가 더 불안정을 일으킨다), 공장식 농장과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을 포함한다. 50%의 식량이 산업적 농업에서 낭비된다.

생태적 농업, 유기농은 흙의 유기물을 늘려서 과잉의 탄소를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대기중으로부터 원래 있어야 할 곳인 흙으로 끌어들인다. 헥타르당 토양 내 탄소 2톤이 늘어나면 우리는 대기중으로부터 10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배출량 격차를 맞출 수 있다. 화학적 단작농업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이외에도 극단적인 사건들에 더 취약하기도 하다. 유기농과 종다양성은 흙, 식물, 생태계, 그리고 지방 공동체들의 회복력을 증진해 준다.

14) 해양, 바다 그리고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토지는 바다에 연결된다. 토지에서의 산업적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해양 온난화, 해양 산성과,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적 농업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 유출은 해양에 '죽은 지대'들을 만들고 있다.

유기농을 통한 흙의 돌봄은 해양의 돌봄으로 표현된다.

15) 육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그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며,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에 대처하고, 토질악화를 멈추고 이를 뒤집으며, 종 다양성의 상실을 멈춘다.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평화로운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들을 촉진하며 모두에게 정의(正義)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설명책임을 지고 포용적인 제도들을 수립한다.

토질악화 그리고 이와 함께 생계수단의 파괴는 분쟁들에 연료를 공급한다. Terra Viva, 토지에 관한 나브다니야 선언은 시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의 분쟁들이 토질악화, 물 고갈 그리고 기후 영향의 결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984년의 펀잡의 폭력사태의 뿌리에 대한 통찰은 "녹색혁명의 폭력"(V. Shiva)이란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평화로운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들은 "지구와 평화를 만들기" 그리고 흙과 새로운 계약을 맺기에 기초를 둔다.

17) 실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재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은 우리의 지구 공민권에 그리고 그와 연관된 권리들과 책임들에 착근될 필요가 있다.

차례

제1부 해야 할 선택 ····· 4
분리와 파편화의 패러다임 ····· 4
단선적 접근방식으로부터 순환적 접근방식으로 ····· 5
자연계의 교란: 걷잡을 수 없는 생태 발자국을 통한 지구별의 경계선들의 침범 ····· 7
사회적 세계의 교란 ····· 9
사라져가는 민주주의 ····· 9
커지는 불평등 ····· 9
일어나는 분쟁들과 폭력 ····· 10
지구별 공민권의 새로운 시야를 향하여 ····· 11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땅이다. ····· 12
새로운 농업을 향하여 ····· 13
새로운 순환경제 ····· 13
새로운 민주주의 ····· 15

제2부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땅이다. ····· 17
공유지의 울타리 두르기와 토지의 상품화 ····· 19
신성한 토지와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 19
새로운 울타리 치기와 토지 장악 ····· 20
토질악화, 기후변화, 강제이주, 생겨나는 분쟁들 ····· 23
단선적 경제에서의 토지: 토질악화 대 복구 ····· 27
토지 복원, 토지 개혁, 토지 협치 ····· 28
흙 - 생명의 기초 ····· 31
우리의 살아 있는 흙에 대한 위협 요인들 ····· 34
흙을 돌봄 - 토양 복원과 토양 원기회복 ····· 36

제3부 새로운 농업 ····· 40
긍정적 추세 ····· 43
산업적 농업의 폐단 ····· 44

제4부 새로운 순환경제 ····· 47
금융 ····· 48
무역 ····· 50
법규 ····· 52
일을 재 정의하기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창조적 기회 ····· 54
도시들 ····· 56
소비자들에서 시민들로 ····· 58
가상적 토지 장악과 토지 발자국 ····· 59

제5부 새로운 민주주의 ····· 61

참여는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중심이다. ····· 61
다양성이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 64
분권화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 64
공동체들과 공유지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 65
땅과 토지의 권리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중심이다. ····· 67
부록 I ····· 68
부록 II ····· 71